

공군

www.airforce.go.kr

2003. 3 제297호

특집/공군이 변한다

사진으로 본 변화와 개혁의 1년

생존을 위한 변화관리

인트라넷에서 시작되는 변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공군본부

특집/공군이 변한다

- 인사개혁의 배경과 주요내용 / 4
- 사진으로 본 변화와 개혁의 1년 / 6
- 생존을 위한 변화관리 / 12
- 인트라넷에서 시작되는 변화 / 14
-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 16

하늘로! 우주로!

- 칼럼/유비쿼터스(Ubiquitous) 공군! / 24
- 항공우주군을 향하여/대 위성 요격무기 / 28
- 우주상식(4)/우주기상(1) / 32

한마동맹

- 함께 움직이는 한·미연합 공조체제 / 26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 / 43

이달의 행사/인물

- 창설 50주년 맞은 제10전투비행단 / 34
- 현혈! 안하는 사람이 손해죠... / 36
- 블레이크 팬클럽 초청행사 / 50
- 호국인물/공군대위 임택순 / 61

생활속의 지혜

- 건강 365일/전자파, 안녕! / 44
- 생활법률교실/폭행과 비폭행 사이 / 45
- 기상전망대/3월 황사피해에 대비하자 / 49

문화나들이

- 풍경의 발견/역사 속의 민속마을 낙안읍성 / 46
- 기지극장/디 아워즈 / 55
- 문화마당/사각 속에 담긴 환타지아... / 56
- 음악의 날개 위에/음악의 사회심리학 / 58
- 책으로 읽는 세상/시간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 59
- 마음의 양식/술선수범하는 생활 / 60
- 마음으로 읽는 글/100번쯤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 / 62

- 항공기 열전 / 31
- 의무교실 / 38
- 장병기고 / 42
- 독자마당 / 64
- 다른 그림 찾기 / 67





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대 욱



정보과학군 건설을 위한 역량 집중

군의 정보화·과학화는 신정부의 국방관련 주요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공군력 건설의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력한 추진이 예상되는 군의 정보화·과학화에 공군이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대내·외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보과학군의 개념 정립과 정보과학군 건설을 위한 군사력 건설 및 예산 소요 등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중지를 모아 노력을 결집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모든 공군요원이 한 목소리를 냈으로써 한국군이 첨단 정보과학군으로 도약하는데 우리 공군이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군본부 주간상황보고회의에서)



參謀總長 指揮意圖 解說(2)

인사개혁의 배경과 주요내용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김대욱 참모총장이 단행한 공군개혁의 첫 출발점은 바로 인사개혁이었다. 참모총장이 밝힌 인사개혁의 배경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공군조직의 성패는 "공정한 인사"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공군발전의 목표는 예산사업 중심의 하드웨어(hardware) 개선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software)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하드웨어만의 개선은 전투력 발휘의 승수효과를 가져 올 수 없으므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무형전력(소프트웨어) 개선에 포커스를 두었던 것이다.

참모총장은 소프트웨어 개선의 중심을 '사기'와 '단결심' 고양을 통한 '정신전력'의 강화에 두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인사관리'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참모총장의 복무방침 중 '인간중심의 지휘관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며, 따라서 '인사관리의 개선'을 공군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참모총장은 현재 인사관리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잔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공군의 인사관리는 그동안 군내 개혁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은 되었으나, 공군 조직발전의 걸림돌로 일컬어져온 다음 두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오랜 기간 작전중심의 인사관리로 인해 지원분야는 늘 소외감을 느끼고 업무수행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됨으로써 공군조직의 균형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급심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소규모 조직 특성상 심사위원 대상자들이 사전에 예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청탁유혹이나 학연·지연의 영향이 잔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심사절차와 방법에서도 명확한 기준보다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각 분과위간 심사결과가 심한 격차를 보이는 등의 문제점

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참모총장이 재임 1년 간 꾸준히 추진해 온 인사관리의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 특기의 균형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대령진급의 경우, 작전 지원분야간 진급비율이 과거 평균 6:4에서 4:6으로 뒤바뀌었으며, 또한 창군 이래 지난 50년 간 2명밖에 장군진급자가 없었던 헬기분야와, 지난 5년 간 장군진급자가 한 명도 없었던 수송기분야에서도 장군진급의 기회를 주어 올해 각각 1명씩 발탁함으로써 지원기조종사들의 사기를 앙양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하고 투명화한 것이다. 과거 준/소장으로 한정하던 장군진급심사위원을 대령부터 소장까지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특히, 장군진급 시기를 놓친 경과기수 고참대령을 심사위원으로 활용하여 다면평가를 시도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통계학적으로 합리적인 심사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심사집계도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투명하고도 신속 정확한 결과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사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제고되었고,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획기적인 인사관리 개선은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강력한 시행 의지와 공군 전 장병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매우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평

가된다. 그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크게 제고되어 진급관련 각종 잡음이 사라졌으며, 근면성실하고 능력이 있으면 발탁된다 는 기본적인 신뢰가 공군 저변에 폭넓게 형성됨으로써 군내 정의사회 실현의 토양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후배들에게 '나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었고, 나아가, 공군 전체의 사기 앙양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하나의 성과로는, 전 분야를 망라한 균형적인 발탁을 통해 구성원의 단결심을 한층 고양한 것으로, 그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지원분야의 사기가 높아졌음은 물론, 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군발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열띤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값진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참모총장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온 인사개혁은 우리 공군의 총체적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공군 전 장병 및 군무원들은 앞으로 계속될 공군 개혁에 다같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우리 모두 항공우주군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





제27대 공군참모총장 취임(02. 3. 2)

"공군 전 장병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헌신적인 열정과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단결하여 규정과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킴으로써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군」을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 「취임사」 中에서

취임 후 첫 공군 지휘관회의(02. 3. 8)

"총장이 취임할 때, 우리 공군을 정말 '멋진 공군'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며, 타군에서도 부러워하는 군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멋진 공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2002년 3월 2일, 제27대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한 김대욱 대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군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인사분야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공군발전의 일념으로 각고 어린 노력을 기울여 온 김대욱 참모총장의 그간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를 계기로 멋지고 자랑스러운 선진 정예공군 육성을 위해 전 공군인이 합심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제50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02. 3. 12)

“공군 전 장병들은 ‘완벽한 영공방위태세 유지’와 ‘미래지향적 공군력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여, 국가 안보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더욱 굳건히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 「공사 졸업식 노고치하」 지휘서신 중에서

군사외교활동 1(02. 3. 30)

미 공군참모총장(대장 John. P. Jumper) 초청, 한·미 공군간 공조체제 강화 및 교류추진 방안 논의



차기 전투기로 F-15K 선정(02. 4. 19)

“F-X 사업의 적기 전력화는 바로 공군인의 합심노력과 통일된 의견이 뒷받침될 때 완성됩니다. F-15K가 전력화되어 조국 영공수호의 핵심전력으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까지 각자 맡은 바 소임 완수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각별히 당부합니다.”

- 「지휘서신 제4호」 중에서

20전투비행단 순시 후 지휘비행 실시(02. 5. 9)

월드컵 대회 앞두고 KF-16 탑승, 1시간동안 주요 월드컵 경기장 인접 상공 등을 비행하며 대비태세 점검

남해지역 ○○포대 순시(02. 5. 14)

“군사대비태세는 우리군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기본임무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제24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02. 5. 19)

“이제, 21세기는 강한 항공우주력을 보유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우리 나라가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반드시 도약, 발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108기 공군 사관후보생 임관식(02. 7. 3)

“우리 공군이, 미래전의 핵심전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첨단 정보과학군이 되어야 하며, 그 성패는 여러분과 같은 전문인력들의 활약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임장교 여러분들은, 정보과학군을 지향하는 공군 전체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군의 장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선진 정예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낡고 정체된 틀을 새롭게 바꾸는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변화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급의 高下를 떠나 공군인 모두가 동참하고 짐을 함께 나누어 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요, 의무라고 확신합니다.

- 「2003년 신년사」 중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전투기·수송기 조종사 탄생(02. 9. 26)

“우리 군과 여성사에 또 하나의 신기원을 연, 여성조종사의 탄생을 축하하고 신임 조종사 여러분의 武運長久를 기원합니다.”

- 「02-2차 고등비행수료식 훈시문」 중에서

군사외교활동 2(02. 10. 4)

일본자위대 항공막료장 이쿠로 토타케(Ikuro TOTAKE) 대장 초청, 항공자위대의 F-15 운영경험 및 Know-How 지원과 한·일 공군간 교류확대 협의



김대욱 참모총장 KAIST의 '올해의 동문상' 수상(03. 1. 11)

KAIST에서 산업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대욱 참모총장이 선진정예공군 육성과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한국과학기술원 총동창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동문상' 수상



군사외교활동 3(02. 11. 21~27)

한·미 공군간 유대를 강화하고 F-15K 적기 전력화와 후속 군수지원 보장을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공군본부, F-15K 제작사 등 방문

'02년 연말 지휘관회의 개최(02. 12. 6)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조직은 진화, 발전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되고 결국 소멸되게 됩니다. '공군'이라는 조직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발전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한 변화관리



기업지식전략컨설팅 대표이사 이 재 관

인간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하여 자신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해 나가다가 인간의 수명을 다하게 되면 자연생태계에서 물러나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런 인간처럼 인류나 민족의 번영을 위해 국가를 방위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태어난 집단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하며, 그 생명성을 다할 때까지 활동해 나가게 된다. 우리는 인간과 같이 자신이 태어나게 된 임무를 인지하고 그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하여 활동해 나가는 집단을 기업(Enterprise)이라고 부르며 그 집단이 협력하며 경쟁하여 같이 활동해 나가는 환경을 기업생태계(Enterprise Ecosystem)라고 부른다.

기업생태계(Enterprise Ecosystem)

기업생태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집단

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생존을 위한 활동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지원활동을 해 나가는 비영리 집단도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나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비영리 집단은 생명성을 가진 유기체인 인간

들이 모여서, 실현해야 하는 임무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공감하는 또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여 끊임없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민족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형성된 집단인 국가로부터 영공을 방위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결성된 조직이 우리 공군이다. 그리고 우리 공군과 같이 영해와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는 해군과 육군은 기업생태계에서 협력하고 경쟁하는 조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무를 부여받아 태어난 세상의 모든 유기체는 시간에 의해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그 조직의 의지와는 다르게 외부의 힘과 환경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먼저 변화하여 적응하고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변화를 외부의 힘과 환경으로 강요에 의해서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여 적응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와 목표를 실현하는 기회로 만들 것인가의 선택의 과제만이 남아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변화를 주도하여 조직에게 생명성을 불어넣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임무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변화를 경영(Management = Creation + Administration)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조직에 생명성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

변화를 주도하여 조직에 생명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조직에 부여된 임무와 관련하여 그 조직구성원들이 공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 쓰여지는 전략, 주요성공요인, 성과측정지표를 정립하여 우리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놓고 매진하는 일이다. 조직의 힘을 우리의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조직 구성원이 명심하고 매진할 때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며, 조직의 꿈과 이상인 비전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조직이 살아 숨쉬기 위한 두 번째 변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명심하고 그 역할을 다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기업에서 비즈니스 체계(Business Architecture)라고 부르는 조직의 나아갈 방향과 이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인 프로세스를 정의한 후, 조직원이 그 활동 하나하나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전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

해 성의를 가지고 조화롭게 수행해 갈 때 이러한 변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모여 형성한 유기체인 조직은 사고하는 인간이 모인 만큼 스스로 발견한 현상을 보고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서의 가치를 발휘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스스로 사고하고 사고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하는 자율성을 가진 객체로 자신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과거 조직이 변화를 경영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의 조직에 생명성을 불어넣는 마지막 방법은 조직 구성원을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그 인간성을 회복해 주는 것이다. 우리 조직이 부여받은 임무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열과 성의를 다해 수행하고 그 결과인 데이터를 세심한 관찰력을 통해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해석하여 방향을 제시할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변화 경영이 이루어지며, 지식 경영이 실현된다.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살아있을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듯 우리 조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목표를 망각하고 변화의 주체를 내어놓는다면 더 이상의 존재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조직이 생명성을 가지고 귀중한 존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경영해 나가는 용기와 성의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나라의 영광뿐만 아니라, 세계의 하늘을 우주에서 지켜 낼 수 있는 공군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 🚀

OVER THE INTRANET

인트라넷에서 시작되는 변화

제30방공관제단 중위 김 영 실

처음 입대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가운데 '인트라넷'이라는 것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전자문서 기안과 접수, 결제 등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부지런히 익히며 인트라넷과 조금씩 친해져 갔고,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는 '전자우편'을 사용할 여유도 생겼다.

물론 모든 업무의 99%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트라넷 없이는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트라넷은 단순한 '전자문서시스템'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여 개의 예하 관제부대를 관장해야 하는 30단 본부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강조지침문서'를 수십 번 내리는 것보다, 일일이 전화하며 '전화통화'로 하루를 다 허비하는 것보다, 정성 어린 안부인사와 실무자로서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예쁜 전자카드 한 통을 보내는 것이 훨씬 효력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나에게서는 즐겨 찾는 커뮤니티가 하나 더 늘었으니 바로 정훈공보실 홈페이지의 '정훈인 광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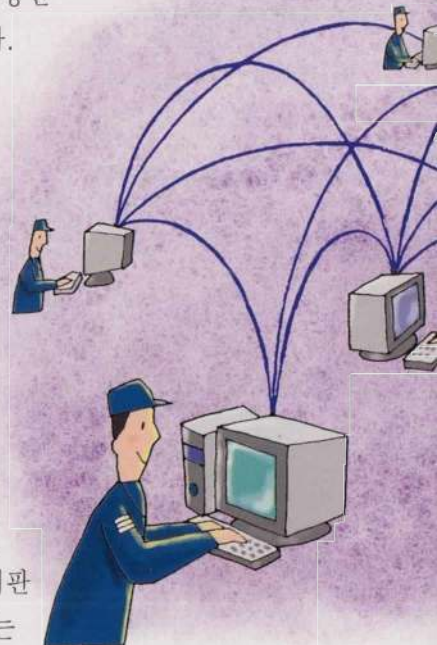
이 커뮤니티는 부담 없고 유쾌하면서도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또한 활짝 열려있다.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각자 몸담고 있는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올리니 가만히 앉아

서 클릭 한 번으로 전국각지의 산해진미를 맛보는 기분이다. 또한 정훈 각분야의 베테랑 선배 장교들의 노련한 안목으로 선정된 각종 업무참고 자료들은 아직까지 군대 초보인 나로서는 그저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기만 하는 것이 황송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열린 자료실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다.

좋은 일을 함께 나누며 축하하고, 슬픈 일에 위로와 격려의 리플들로 상관과 부하, 선후배, 동기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다정한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에선 '변신'이 자유롭다. 최근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명쾌한 논조로 설파하는 열혈 공보장교가 되는가 하면, 글마다 재미있고 정감 어린 리플을 달아 게시판을 훈훈하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도 한다.

사실 군대란 얼마나 단혀 있고 딱딱한 조직인가? 그러나 공군이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혀 있는 열어야 하고, 딱딱한 것은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란 과거처럼 위로부터의 '명령'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훈인 광장'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이름처럼 '광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다. '광장'은 울타리가 없는 열린 공간이다. 광장에서 펼쳐지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엄숙한 공연이 아닌, 모두가 펼쩍펼쩍 뛰기도 하고, 신나게 돌아다니기도 하는 '스탠딩 콘서트'이다. 마음 내키면 무대에 뛰어올라 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어 보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자만이 이 콘서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공군은 3군 중 가장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로 사관후보생 접수를 받고, 입대 장병의 각종 특기 및 보직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한편 '열린 공군'개시관의 성실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군'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오는 등 다가올 인터넷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이제는 인터넷을 넘어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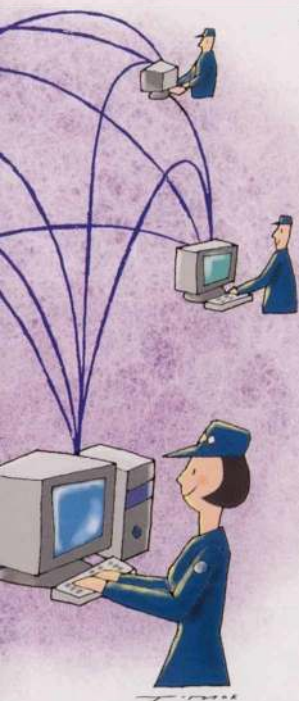
트라넷'에도 변화와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단순한 '전자문서 시스템'이 아닌, 인터넷과 같은 커뮤니티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진정한 '공군내 미디어'로 진일보하고 있는 것이다.

정훈인 광장을 효시로 하여 본부의 다른 부감실에서도 이와 같은 인트라넷 커뮤니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나무만 심었다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커뮤니티가 영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도 다수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커뮤니티의 나무에서 얻어지는 열매는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다. 인트라넷은 '인터넷'과는 달리 일단 '공군'이라는 범위로 참여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입맛을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보다 훨씬 내실 있고 오래가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점을 살려 과거의 단순 홍보용 홈페이지와 같은 '지휘관이 보기에 기분 좋은 공간'이 아닌 '참여자가 보고 싶고 오고 싶은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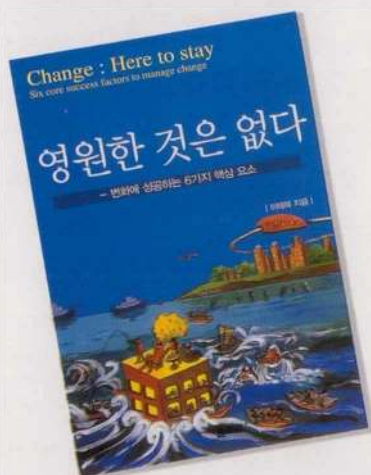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썰렁하지도 난잡하지도 않은 진정 '유쾌한 스탠딩 콘서트'가 '무기한 연장 공연'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마음속에는 '애정'을 머릿속에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결국 기우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트라넷 앞에 앉아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선진 정예 공군인'이 아닌가!

오늘도 '정훈인 광장'에 들러 새로 올라온 업무참고 자료도 받고, 즐거운 소식들도 전해야겠다. 변화와 개혁은 이렇게 벌써 시작되고 있다. (●)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정훈과



위기가 감지됨에도,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물에 잠기는 마을 속에서 죽어 갔을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과연 나는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가?'를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한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매년 풍년이 들고, 인심도 좋고, 아주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런데 기상이변으로 인해 엄청난 홍수가 예고되어 있고, 빠른 시일 내에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물에 영원히 잠겨버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마을의 몇몇 사람들은 이 예측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마을이 영원히 물에 잠길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마을도 '설마, 설마' 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홍수로 잠겨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점차 심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서두른

다.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오랜 회의 끝에 먼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한 지역이 매우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즉시 마을 전체를 그 지역으로 옮길 준비를하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배도 만들고, 노 젓는 기술도 배워야 하고... 준비할 일이 태산 같다.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쳐 올 것이므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다. 새로운 지역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서 마을이 떠 내려가는 것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고향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미룰 일이 아니다.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획한 그들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계획을 발표한다. 일부 사람들은 마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계획에 찬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버리고 왜 떠나면 타향으로 떠나야 하나고 항의한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은 다가올 위기를 믿지 않는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곳을 향해 타고 갈 여러 척의 배가 완성되었다. 마을 최고 어른의 독려 속에 설렘과 불안감 속에

서 많은 배들이 제각기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나아간다. 그런데 뒤를 보니 아직도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다. 최고 어른의 설득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두고 준비된 사람들만 떠난다.

그런데 모든 배들이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지는 못한다. 어떤 배는 지도를 잃어버려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고, 어떤 배는 풍랑에 뒤집혀서 사람들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노 젓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그냥 돌아가는 배, 배 안 사람들의 의견충돌로 오도 가도 못하는 배, 식량준비를 충분치 않게 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배,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고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배...

이런 속에서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발한 배 몇 척이 마침내 먼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한다. 이들은 도착 후 혹시 다른 배가 오지 않을까 먼 바다를 바라보지만 다른 배들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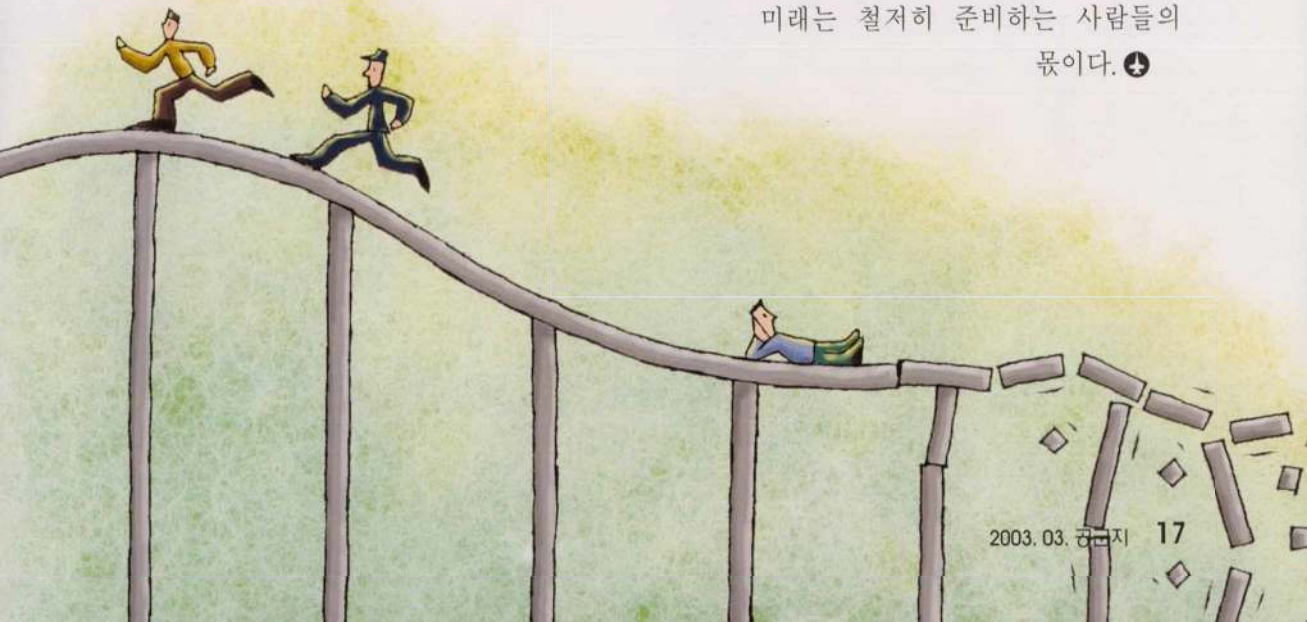
먼저 도착한 이들은 새로운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한다. 예전 마을에 비해 너무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다.

서로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이곳으로 오기를 참 잘했다. 왜 더 빨리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말들을 주고받는다. 얼마 후 뱃사람을 통해 먼저 마을이 홍수로 물에 잠겨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소문을 듣는다. 그들은 남아 있던 사람들을 데려오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린다...

『영원한 것은 없다(이태복 著, 도서출판 물푸레)』에 나오는 이 짧은 이야기는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위기가 감지됨에도,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물에 잠기는 마을 속에서 죽어 갔을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과연 나는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가?’를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사람들처럼 우리 공군 가족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변화의 두려움과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새로운 이상향(理想郷)을 찾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미래는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



R.O.K. Air Force



- 1 김대욱 참모총장, 제18전투비행단 순시 장병 격려
- 2 2003년도 준사관단 회의, 김대욱 참모총장 임석하에 실시
- 3 이한호 작전사령관 군사대비태세 점검 비행 실시

1 2
3





- 4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정훈참모회의 개최, 변화와 개혁의 핵심 역할 다짐
- 5 교육사령부, 제109기 사관후보생 임관식 거행
- 6 2002년 '공군을 빛낸 인물' 선정

- 4 5
- 6

왼쪽부터 (김관홍 상사, 82항공정비창 돌풍분임조(조장 손중성 준위), 57공수비행단(단장 강대희 대령),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전대장 이봉준 대령), 조광제 중령, 박금식 군무원)이 나란히 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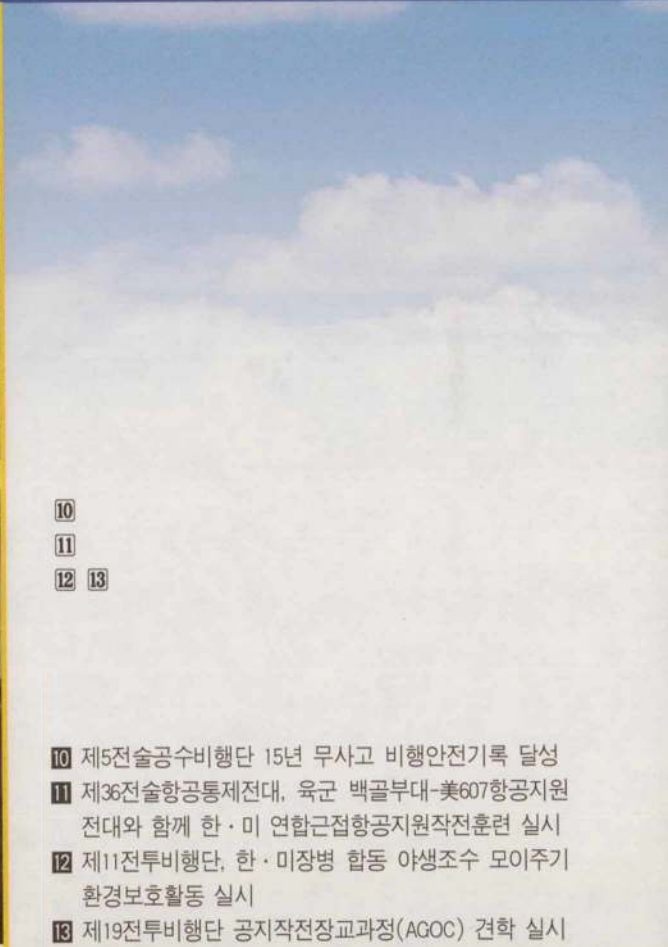
R.O.K. Air Force



- 7 공군본부 법무감실, 사이버시대 대비 법무참모회의 개최
- 8 군수사령부 '정보기술세미나' 개최
- 9 제17전투비행단, 비상활주로 출동훈련 실시

- 7 8
- 9





- 10
- 11
- 12 13

- 10 제5전술공수비행단 15년 무사고 비행안전기록 달성
- 11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육군 백골부대-美607항공지원 전대와 함께 한·미 연합근접항공지원작전훈련 실시
- 12 제11전투비행단, 한·미장병 합동 야생조수 모이주기 환경보호활동 실시
- 13 제19전투비행단 공지작전장교과정(AGOC) 견학 실시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1
2
3

- 1 제10전투비행단, 경기도내 중등교사 초청 부대견학 실시
- 2 제15혼성비행단,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전달
- 3 109기 사관후보생들 기독교야원 방문 성금 전달 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띠는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④
⑤
⑥

- ④ 제17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관사 어린이들에게 태권도 가르쳐
- ⑤ 제16전투비행단 장병 및 군무원 사랑의 헌혈운동 펼쳐
- ⑥ 제7항공통신전대, 美 육군부대와 함께 한·미 합동 환경정화활동 실시



유비쿼터스(Ubiquitous) 공군!

숙명여자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형남

e커머스(전자상거래)/e비즈니스, m(모바일)커머스/m비즈니스, t(TV)커머스/t비즈니스, c(협업)커머스/c비즈니스, u커머스/u비즈니스 ……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급속하게 발전하는 e비즈니스를 바라보면 그 끝이 어디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e비즈니스 발전 단계를 다섯으로 구분할 경우, 1단계 : 온라인 회사 소개, 2단계 : 온라인 제품 목록, 3단계 : 온라인 단순 상거래, 4단계 : 공공 마켓플레이스, 5단계 : c커머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현재 가장 발전된 e비즈니스의 형태는 c커머스가이고, 앞으로 다가올 예상 가능한 최첨단 e비즈니스 유형은 'u커머스' 또는 'u비즈니스'다.

협업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c커머스(collaborative commerce)는 기업간 단순 전자상거래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제품기획·설계·공급망 구축·생산·물류·서비스 등에 이르는 전체 기업 활동에 대해 참여자 모두의 기회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총체적 협업 체계를 네트워크상에서 구축하는 것이다. 흔히 'c커머스 기업'은 '가상(통합) 기업'이라고도 한다. 즉, e커머스가 인터넷을 이용해 단순히 상거래를 하는 데 반해 c커머스는 기업 내부는 물론 고객·협력업체·공급자 등과의 전자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

해 가상 통합기업을 실현함으로써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무한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윈-윈(win-win)하기 위해 기업 내·외부의 핵심 역량을 공유하는 새로운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할인점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쇼핑객들을 보면서 「언제 내 차례가 되나」하며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e비즈니스와 카드산업이 발전하면 이 같은 답답함은 사라집니다. 쇼핑카트에 물건을 넣는 순간 적외선 감식장치를 통해 지갑 속에 꽂혀있는 카드에서 자동적으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죠.” 지난해 10월초 시장조사차 한국을 찾은 말콤 윌리엄슨 비자인터내셔널 회장의 말이다.

물건을 넣는 순간 결제되는 시스템 눈앞에

세계 최대 신용카드 브랜드사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그는 향후 e비즈니스와 카드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경제생활은 혁신적으로 편리해 질 것이라며, “이같은 혁신의 밑바탕에는 u커머스라는 새로운 결제방식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u커머스는 범세계적(universal) 또는 세계 도처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ubiquitous) 등의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

u커머스가 발전하면 전통적인 결제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결제가 '장소에 상관없이(Anywhere), 시간에 상관없이(Anytime),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어떤 방법으로나(Anyway) 이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윌리엄슨 회장은 '오는 2006년에는 전세계 카드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카드로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커머스와 함께 '유비쿼터스 컴퓨팅(u컴퓨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원래 유비쿼터스란 말은 공기처럼 도처에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목표는 모든 인공물에 컴퓨터 기능을 심고, 이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 또는 기기들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매끄럽게 연결, 통합되는 꿈을 이룬다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산소와 같이 컴퓨팅이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투명해질 것이다", "이음매 없는 통신이 전세계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웃처럼 입는 컴퓨터가 일반화될 것이다"라고. 곧 유비쿼터스 환경이 실현될 것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e비즈니스 또는 IT와 관련해 계속 생겨나는 신조어들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또 새로운 용어를 보고도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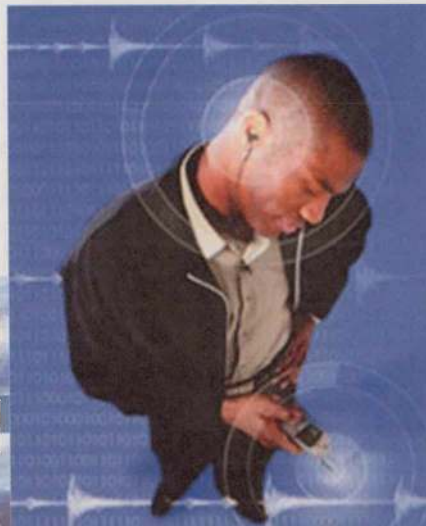
장병들이 급변하는 e비즈니스·IT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알고 넘어 갈 것은 알고 넘어가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가 요구된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각자 자신의 전공과 IT를 결합하라고 강조한다. 21세기를 이끌 유망 기술 다섯 가지(5T)로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ST(항공우주기술) 등을 꼽기 때문이다. 공군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공인 ST에 주력하고 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부전공으로서 IT를 택해 전장병이 정보화 마인드로 무장해서 전공인 ST와 잘 결합하라는 것이다.

정보화마인드로 무장한 정예공군 되기를...

그렇게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우리 공군 전 장병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소수정예의 '유비쿼터스 공군'으로서 군에서는 지상군과 해상군을 선도하고, 공군에서 전역하는 장병들은 첨단기술 공군 출신으로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사회를 리드하는 지도자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 주요 언론들은 2003년의 키워드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꼽고 있다. 즉, IT의 흐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 공군은 ST

와 IT를 결합해 미래를 이끌 신기술인 u컴퓨팅과 u비즈니스에 대해 앞서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함께 움직이는 한 · 미연합 공조체제

작전사령부 대위 김 기 호

지난 1월 27일 15시경 미군의 U-2 항공기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사고 소식을 접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평상시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온 것이 계기가 되어 미 공보실에서 우리에게 공보지원을 요청해왔다.

미 공보실장은 사고현장으로 떠나는 헬기에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평소 자주 업무협조를 하고 상호간의 교류가 있었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서로가 현장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미 공보실 요원과 나는 가장 먼저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미 공보실장은 사고현황을 파악하고 보도자료에 대한 의견교환을 사무실과 나누기 시작했고, 난 현지 언론매체 현황과 앞으로 현장 브리핑을 할 경우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알맞을 것인가 등을 살폈다. 또한 언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삼가며 미측은 우리에게 언론매체의 잔해수거작업의 방해요소들을 전달했고 난 이러한 미측의 협조사항을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구해야 했다.

미 공보실장은 사고현황 파악과 보도자료 작성 방향을 잡은 후, 1차 브리핑을 위해 함께 현장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현장발표는 미 공보실장의 발표를 통역요원을 통해 통역하는 것으로 하고 함께 내용을 정리했다.

1차 브리핑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사과의 메시지와 함께 신속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기자들은 사고의 원인을 무엇으로 추정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현장 브리핑을 하기로 약속을 한 후, 1차 브리핑은 종료했다.

미 공보실은 명확히 1차 브리핑의 선을 긋고 차후 현장 브리핑을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1차 브리핑에서 밝히지 못한 피해자들의

정확한 명단을 병원을 통해 파악해서 미 공보실장에게 내용을 전달했고 미 공보실장 또한 추가적인 내용파악을 하며 2차 발표자료를 준비했다.

2차 발표에서는 1차 자료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으나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며 차후 브리핑 자료에서 반영할 것을 약속을 했다.

22시경이 되자 일단 철수를 하는 기자들이 많았다. 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 요원들은 다음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부대로 복귀하여 녹화된 보도내용을 살펴본 후, 당일 지원사항을 간단히 정리하고 하루의 임무를 종료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밤새 언론 발표자료가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 한측에서 공보업무상 협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14시경이 되자 미측 공보요원들이 철수하기로 결정하여 함께 부대로 복귀를 했다. 부대로 복귀하여 우선 미 7공군 및 51비행단 공보실로 가서 준비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지원사항을 보도 자료에 담고자 함에 따라 내용을 검토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미측의 요청자료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하여 미 공보실로 내용을 전달했다.

사고당시의 분주함은 사라지고 이제 마무리된 지금, 미 공보실장 왈튼 소령이 연합공조체제로 이루어진 초기대응에 만족해하며 "You're good friends"라는 한 마디를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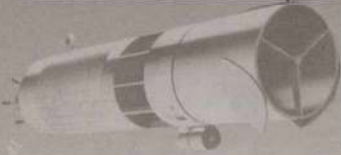
이 아직도 잔잔히 머릿속에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당시 현장에서 육군과 경찰의 신속한 주변 통제, 시청관계자들의 현장 임무요원 및 피해자 지원, 그리고 미측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 피해자들의 협조가 너무나 조화롭게 이루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미측의 움직임을 보면서 배운 점이 있다면 바로 언론에 대한 태도라는 생각을 했다. 언론을 국민과의 연결고리로서 생각을 하고 사고현장 투입시 기본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체제화되어 진행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빠르게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즉, 사고현장에 투입되어 사고조사를 하고 물리적 수습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시청 관계자들과 군·경에 대해 미군이 보여준 깊은 감사의 모습에서 앞으로의 유대활동은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연합업무 수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차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나로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공보회의를 통해 전시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해나갈 것이며 또한 언론상황 발생시 어떠한 것을 협조를 할지 등 논의를 해왔지만, 과연 이것이 탁상공론일 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함께 움직이는 업무 파트너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 기뻐다. ⊕

대 위성 요격무기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장영근

지상 수백km의 궤도에서 정찰과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위성은 상대방에게 큰 위협을 준다. 당연히 상대방의 위성을 궤도상에서 파괴·무력화시켜 버리자는 발상으로부터 탄생한 무기체계를 위성요격체계(ASAT : Anti-Satellite)라고 한다. 초기 ASAT에 대한 연구는 1960년부터 1962년 사이에 수행되었으며, 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빔을 사용하거나, 위성의 광학시스템을 차단하기 위해 페인트로 위성을 차폐시키고, 위성의 궤적 내에 금속 파편을 배치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미국의 육·해·공군은 각각 'Project Mudflap', 'Early Spring' 및 'Project 437 Thor' 이라 불리는 ASAT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1980년대 ASAT 프로그램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별들의 전쟁(Star Wars)'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지향성에너지무기인 고에너지 레이저무기는 위성 요격무기로서도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궤도상에 매복하는 소위 킬러위성 쪽으로 개발하고, 미국은 F-15와 같은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쪽으로 개발하여 양국의 발상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대 위성 요격무기로는 자국의 위성을 보호하고 수비하는 '경호위성(bodyguard satellites)', 적 위성 근처에 진입시키는 스텔스

ASAT인 '잠입위성', 그리고 필요시 자체 폭발에 의해 적의 위성을 파괴하는 '기생위성(parasitic satellites)'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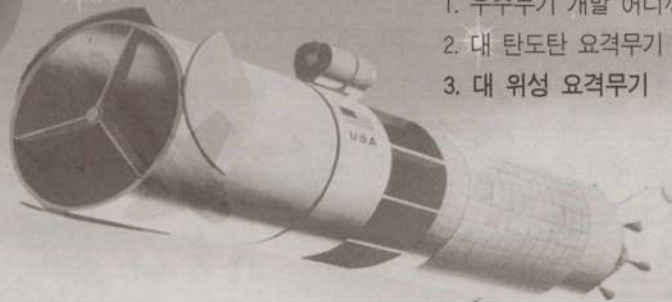
지향성에너지무기

지향성에너지 무기 중 고에너지 레이저무기는 미사일보다 위성 요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적의 스파이위성을 차단하고 위성의 전장품의 기능을 정지시켜 완전 파괴에 의한 우주파편이 아국의 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현저히 줄이기 때문이다.

미 육군은 연속 빔을 목표물에 70초 이상 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메가와트급의 DF 중적외선 화학 레이저(MIRACL : Mid-Infrared Advanced Chemical Laser)를 개발했다. 1997년 10월에 MIRACL은 노후화된 미 공군의 MISTI-3 위성에 두 번의 짧은 빔을 발사하여 스파이위성의 기능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의 성능을 검증한 바 있다.

킬러위성(Killer Sat)

본래 지구의 궤도를 도는 위성은 복잡한 기능을 갖춘 취약한 구조를 지녔고, 궤도 위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정확한 공격에 대해서 지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격용 무기는 대형일 필요가 없으며, 공격정밀도가 충분하기만 하면 거대한



1. 우주무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2. 대 탄도탄 요격무기
3. 대 위성 요격무기

폭발력도 필요가 없다. 위성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방에 다수의 금속파편을 뿌리기만 해도 충분한 파괴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옛 소련이 1968년 이후 15차례에 걸쳐 코스모스위성과 SS-9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일련의 킬러위성은 고도 1,000km 이하의 목표를 향해 스스로 궤도를 변경, 접근하여 자폭함으로써 위성에게 다수의 금속파편 세례를 퍼붓는 방식으로 과거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킨미사일을 요격한 패트리엇(Patriot) PAC-1 미사일의 근접 신관과 같은 방식이다.

적의 위성에게 접근하는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장타원 극궤도(Molniya)로 발사된 다음에 고속으로 목표에 접근하여 목표 근접지점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법은 목표와 동일한 궤도로 발사하여 낮은 접근속도로 목표위성을 향하여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저궤도에서 목표위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장타원궤도로 뛰어올라 궤도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현재 러시아의 킬러위성체계의 공격능력은 고도 1,000km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만일 이 무기가 실전에서 사용

된다면 고도 100km에서 1,000km 사이의 궤도를 도는 정찰 및 기상관측위성을 공격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대 위성 요격무기(ASAT)로서 수kg 정도의 극소형 위성을 이용하여 필요시 자체 폭발에 의해 적대국의 위성을 파괴하는 기생 위성은 중국이 얼마 전 지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공대 우주(Air-To-Space) 위성요격체계

미국은 러시아와는 다르게 항공기에서 대기권 밖으로 쏘는 위성요격무기체계의 개발을 추진했다. 미국이 개발한 방식은 자폭을 통해 목표에 금속파편 세례를 안겨주는 형태가 아니라 소형 미사일을 직접 충돌시켜 파괴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초기 위성요격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핵탄두를 장착한 무기를 사용하였으나 시험과정 중 전자기 펄스파에 의한 하와이 지역의 정전 사태와 우주 궤도상에서 운용중인 미국의 위성에게까지 위험한 영향을 주어 핵탄두를 이용한 위성요격무기의 개발을 중지하였으며, 핵탄두를 대체할 비 핵형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위성요격체계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다. 그 후 잠시 위성요격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중단이 되었지만 1987년에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 발사형 위성요격무기 (ALMV : Air Launched Miniature Vehicle) 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포드사가 중심이 되어 개발을 추진했는데, 중량 약 5kg의 열추적 호밍 소형비행체(Heat-Seeking Miniature Homing Vehicle), 제2단 발사용 로켓,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단거리 공대지 전략핵공격미사일 (SRAM)용 추진체를 결합시킨 것으로,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던 F-15의 동체에 탑재하도록 한 것이다. 즉, 이 무기는 조종성이 뛰어난 전투기의 급상승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사시의 대기권의 큰 공기저항을 돌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총 중량 약 1.2t인 이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F-15에 의해 발사되어 1단 로켓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로켓이 모두 연소된 뒤 2단 로켓을 쏘서 목표의 위성이 있는 궤도로 유도된다.

2단 로켓이 분리된 후 앞쪽에 있는 비행체 (MHV)는 소형 보조로켓에 의해 급속하게 회전을 하여 자세를 안정시키며, 머리부분에 있는 적외선탐지기가 목표위성을 발견하면 레이저 자이로(Gyro)로 필요한 상하수정운동을 통해 최종단계 유도에 돌입하여 목표와 충돌한다. 이 요격체계는 이미 1984년부터 12차례에 걸쳐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1985년 9월 13일에 실시된 제3차 실험에서는

사용이 끝난 실물위성을 목표로 하여 탄두를 발사, 고도 480km에서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ALMV의 경우 추진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저궤도의 위성만 공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공군에서는 이 미사일을 미니트맨(Minuteman)의 대형 추진체를 사용해서 발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정지궤도 상의 군사위성망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능력을 가지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대 위성 운동에너지무기(KE-ASAT Weapon)

이 개발 프로그램은 1990년에 미 육군에 의해 착수되었으며, 적 위성을 명중시켜 파괴시키는 지상 발사 살상무기(kinetic kill vehicle)를 사용한다. 현재까지 3회에 걸친 비행시험이 수행되었으나, 적 위성의 격추 후에 발생하는 파편에 의해 아국의 위성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 위성 요격 운동에너지무기는 미사일과 화기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일 시스템의 주요 부분으로는 부스터, 살상무기, 슈라우드(shroud), 발사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화기관제시스템의 구성은 배터리 통제센터와 임무 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무기의 원리는 탄도탄요격용 운동에너지무기와 원리는 같다. Ⓣ

다음 표는 지금까지 살펴본 우주무기들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우주무기의 유형	반응시간	기술적 위험성	신뢰성	공격에의 취약성	효과의 검증	비 용
우주 레이저	매우 양호	매우 높음	미검증	높음	양호	매우 높음
운동에너지 무기	양호	높음	보통	높음	우수	높음
스텔스 ASAT	우수	높음	보통	보통	매우 양호	높음
공 대 우주 요격무기	양호	높음	보통	높음	매우 양호	높음
KE-ASAT	매우 양호	매우 높음	미검증	높음	우수	매우 높음



추력편향(Thrust Vectoring) 개념이 추가되어 개량된 항공기이다. 최초 비행은 1997년 7월에 이루어졌고 1998년 인도 에어쇼에서 전 세계에 소개되었으며 인도와 중국에 SU-30MKI와

SU-30MKK(Flanker-C)

전투발진단 무기체계처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은 해군 항공전력의 보강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SU-30MKK 24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SU-30MKK는 SU-27을 기본형으로 하는 여러 파생형 모델 중의 하나로 중국 수출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장착 가능한 무장으로서는 AA-10, AA-11과 같은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AS-13, AS-14와 같은 공대지 미사일 및 AS-17과 같은 중거리 대방사 미사일 등이 있다.

SU-27은 그 차체의 명성만큼이나 많은 파생형 모델을 가지고 있다. SU-30부터 시작하여 SU-32, SU-33, SU-34, SU-35, SU-37 항공기 모두가 SU-27을 기본형으로 하는 개량형 항공기들이다. 또한 SU-30MKK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모델들은 각각의 또 다른 개량형이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개량 부호가 추가된 SU-27계열 항공기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SU-30은 SU-27의 개량형 중의 하나로 복좌의 장거리 요격기이며 SU-30M은 다양한 공대지 임무 수행도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 생산을 위해 SU-30을 개량한 것이다.

SU-30MK는 SU-30M형에서 항법장비와 귀날개(Canard), 그리고 SU-37에서 사용된

SU-30MKK 모델로 판매되었다.

중국 수출형인 SU-MKK는 복좌의 다목적 전투기로 공대지 능력이 보강된 N001VE 레이더와 컬러 MFD, HUD, 최신 전자전 장비 및 TV 및 전자광학 표적추적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며 27,588lbs의 추력을 낼 수 있는 두 개의 Saturn/Lyulka AL-35F 엔진은 8톤이 넘는 공대지 무장을 장착하고서도 대형 기체가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대 21,253lbs까지 탑재할 수 있는 내부 연료를 이용하여도 작전반경이 1,865NM까지 이르러 공중 재급유가 없이도 원거리 공대지/해 임무를 수행할 있도록 해 준다.

1999년 6월, 러시아가 72대의 SU-30 전폭기 중국판매를 승인한 이후로 중국은 꾸준히 항공전력 현대화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04년이 되면 중국은 SU-27과 SU-30MKK를 포함하여 적어도 192대의 최신예 SU 계열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고, '05년경에는 대만에 대한 항공전력의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SU-30MKK 제원 및 성능 ▷

구 분	제원 및 성능
Weights & Loa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pty Weight : 39,022lbs • 최대 무장 탑재 : 17,637lbs • 내부 연료 : 21,253lbs
성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속도 : M1.14 at S.L • 최대 상승률 : 45,275fpm • 최대 임무 고도 : 56,760ft • 전투 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연료 : 1,865NM - 공중급유 : 3,230NM • 최대 G : +9G

미래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우주상식(4) 우주기상(1)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우주무기담당

1957년 처음으로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후로 우주(Space)라는 단어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천문학이나 천체물리 등은 오랜 역사를 가졌으나 이에 비해 우주 연구(Space Research), 우주 물리(Space Physics), 우주 기상(Space Weather) 등 기타 용어들은 위성 발사를 통하여 사용 가능해진 용어들이다.

이들 용어 중, 우주 기상(Space Weather)이란 우주시스템의 사용과 인류의 우주 활동시 영향을 미치는 태양활동에 의한 전리층과 지구 자기권의 전자밀도, 지자기 강도, 플라즈마 밀도 변화 등 우주공간의 물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즉, '우주 기상'이란 전체 우주 중 위성을 포함한 우주 장비와 인류가 활동할 수 있는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기상 상태를 말한다.

이런 기상 상태는 태양주기 및 궤도와 고도·계절·시간에 따라 변화되며, 또한 위성의 설계, 시험 및 위성 발사 후의 운용, 성능, 수명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정지궤도 위성에 있어서 플라즈마 환경은 위성체 표면에 차등 충전(Differential charging)을 일으켜 전자부품을 파괴할 수 있으며, 아주 강한 우주복사(Space Radiation) 현상은 유전체(Dielectric) 부품에 묻혀서 절연 케이블과 회로판 안에서 정전기 방전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위성체와 민감한 대기의 상호작용은 위성체

표면을 침식시키고 표면의 열적, 전기적 영향을 미치게 하여 위성체 구조의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인공위성의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주기상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양에 의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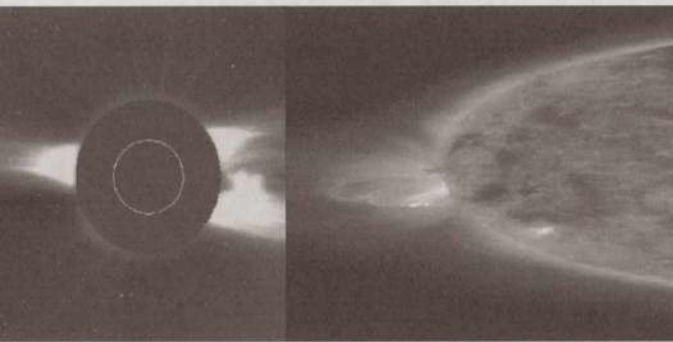
태양은 가시광선 영역 이외에 전리층을 형성하는 자외선, X-선 영역의 복사에너지와 지구 자기권을 만드는 입자 복사에너지 태양풍(Solar wind)을 방출한다. 태양풍은 양성자 및 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시광선과는 달리 태양활동에 따라 방출량이 수배에서 수십 배에 걸쳐 변화한다. 그러므로 우주기상은 대기권의 기상과는 달리 그 상태가 단시간에 극심하게 변한다.

이 같은 태양의 이상현상은 흑점이나 플레어(태양표면의 에너지가 급격히 외부로

방출되는 현상), 홍염(태양의 채층 전면에서 높이 소용돌이쳐 일어나는 붉은 빛의 가스체로써 개기 일식 때 볼 수 있다), 코로나(태양 가장 바깥부분의 띠로 수백만도 고온의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다) 등의 형태로 일어난다. 특히, 코로나는 수십 억 메가톤의 핵폭발과 맞먹는 대규모 폭발 현상으로 하루에 대 여섯 번씩 1백억 톤가량의 가스를 분출한다. 자기 폭풍은 이와 같은 현상으로 방출된 자기장이 거대한 파장을 일으켜 우주공간으로 퍼져가면서 발생되며, 이 자기장은 우주공간의 자력선을 통해 지구까지 날아와 영향을 미친다.

자기 폭풍에 의하여 이온층의 밀도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약 1,000km 까지 인공위성의 고도에서는 대기의 밀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이는 우주에서 인공위성의 drag를 증가시키며 따라서 천천히 약간씩 위성의 궤도를 바꾸게 된다. 만약, 저궤도 위성을 지속적으로 높은 고도로 추진하지 않으면 서서히 떨어지며 결국 지구 대기권에서 타버리게 된다. 기술발달에 의해 위성체의 부품이 작게 되면서 소형화된 시스템들이 더 많은 태양 입자에 의해 더욱 상처받기 쉽게 되었다. 이러한 우주 입자들은 마이크로칩에 물리적인 손상을 주거나 위성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명령을 변경시킬 수 있다.



기 변화하면 GPS 신호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하여 LORAN 또는 OMEGA 등의 항법시스템(Navigation System)에 오류가 발생된다. 또한, 폭풍 기간 동안 레이더의 화면은 목표 이외의 물체에 의한 간섭 에코인 'Radio Cutter'에 의해 방해로 입게된다. 미국 연방 항공국은 정기적으로 태양 전파 폭발(Solar Radio Bursts) 경보를 받아들이며 통신 문제를 인지하여 불필요한 유지보수를 줄이고 있다.

자기 폭풍이나 태양 자외선은 지구의 상층 대기를 가열하여 팽창하게 한다. 가열된 대

이 밖에도 우주비행사가 우주비행선에 탑승하거나 달 등에 우주 기지를 세울 때 고에너지 입자는 우주비행사의 세포에 손상을 주거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태양현상에 의한 자기 폭풍은 인공위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주기상 예보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창설 50주년 맞은 제10전투비행단

6·25 전쟁 중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을 비롯하여 총 7,800여 회 출격하여 각종 항공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조국을 수호하였으며, 전후(戰後)에도 각종 대간첩 작전과 이웅평·이철수 대위 귀순 작전 등 주요 방공작전에 참가한 제10전투비행단. 50년간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방위의 최선봉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0전비가 지난 2월 15일 비행단 창설 50주년을 맞이했다.

10전비는 이 날 창설 50주년을 맞아 역대 비행단장들을 부대로 초청, 선후배간의 의지를 다지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2대 단장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500여 회의 출격에도 완수하지 못했던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단 14회의 출격으로 완수한 김두만 장군 등 역대단장 16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부대현황 보고와 부대 역사 및 주요 발전상 소개, 역대 단장 업적 회고, 비행단 주요시설 방문,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역대 비행단장들은 기념식 이후 때맞춰 새로 개관한 부대 역사관(취용관)에 전시된 각종 사진 및 자료들을 보면서 자신들



의 현역시절을 회고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더불어 오늘날 현대전의 핵심전력으로 성장한 공군과 후배 장병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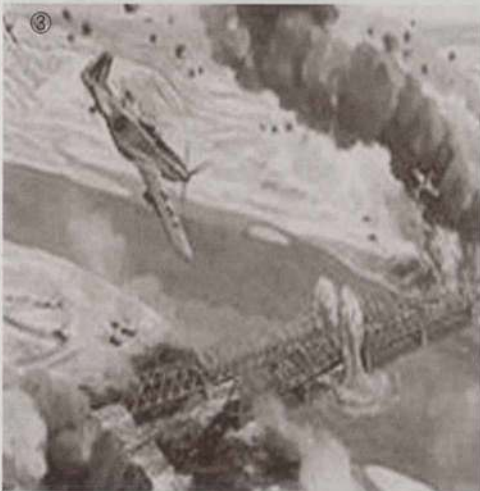
대하고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후배 장병들의 노고를 일일이 격려하였다. ㉠



①



②



③



④

- ① 한국 공군 최초 1,000회 출격을 달성하고
- ② 귀순 직후 환한 표정의 이철수 대위
- ③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기념 유화
- ④ 조형미를 살린 부대 정문

헌혈! 안하는 사람이 손해죠...

- 7년간 50회의 헌혈을 실시한 정범중사 -

대담 · 정리/공군제8785부대 소위 황성욱

'이웃사랑' 이라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가장 손쉽게 실행할 수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웃사랑' 이 있다. 바로 '헌혈' 이다. 특히 군인 이라면 휴가나 외출시 '건강보증수표' 인 군복 입은 젊은이들에게 유독 집요하게 헌혈을 권유하는 자원 봉사 아주머니들을 많이 마주쳤을 것이다. 그러나 1초가 아쉬운 황금같은 휴가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혹은 주사 바늘이 무서워서 그냥 뿌리치고 간적은 없는지? 좋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큰 맘 먹어야 한 번 하는 헌혈을 습관(?)으로 삼아 무려 50회에 달하는 헌혈 기록을 갖고 있는 공군인이 있어 만나보았다. 공군제8785부대 정범중사가 그 주인공이다.

사입니다. 조종사와 방공무기통제사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장비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임무입니다. 공군 작전 임무에서 통신은 작전수행의 기본이므로 통신無중단이 제 임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저의 임무완수를 통해 공군 작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의 선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관제부대에서 헌혈하러 나오기가 쉽지 않을텐데 힘든 점은 없으신지?

그렇죠. 우리 8785부대는 '하늘 아래 첫부

헌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기술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했습니다. 그때 단순한 호기심에 헌혈의 집에 한 번 들어가 본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영내 하사생활을 마친 지난 '96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군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부대에서 맡은 업무는 항로통신정비





헌혈 한 번으로 다양한 성인병을
한번에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 좋구요.
돈이나 시간이 드는 일도 아닌데
나의 작은 관심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헌혈을 하면서 느끼는 큰 보람입니다.

대·눈꽃부대'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높고 험한 산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1,400미터가 넘으니까요. 부대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데만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리고, 요즘 같이 눈이라도 쌓여 있을 땐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헌혈을 하러 내려오기는 힘들고, 휴일이나 휴가 또는 출장 중 점심시간 등 잠이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50번의 헌혈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처음엔 제가 헌혈하는 횟수도 헤아리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간호사가 20회가 되었다면서 이 정도면 많이 했다고 등록 헌혈증을 주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후부터는 매번 헌혈할 때마다 스스로도 횟수를 헤아리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군요. 특히 헌혈은 건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내가 이 정도의 헌혈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헌혈증은 모두 모아 두셨나요?

아닙니다. 50회를 했지만 현재 갖고 있는 것은 3장 뿐입니다. 의외로 주변에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더군요.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나눠주다 보니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헌혈을 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헌혈이 이웃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헌혈하는 사람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무료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헌혈 한 번으로 다양한 성인병을 한번에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 좋구요. 돈이나 시간이 드는 일도 아닌데 나의 작은 관심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헌혈을 하면서 느끼는 큰 보람입니다.

공군인들에게 헌혈 홍보 한 마디...

헌혈은 건강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내 건강도 체크하고 남의 생명도 살리는 일이고, 저처럼 이렇게 칭찬도 받게 되는데(웃음) 안 하면 손해죠. 우리 나라에 기름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피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공군장병들은 휴가나 외출시 멋있는 파란 약복을 입잖아요. 그거 입고 헌혈의 집에 누워있으면 그대로 '공군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종사 건강, 우리가 책임진다!

공군본부 의무감실

수백 만년에 걸친 인류의 진화와 발달의 과정을 통해서 인체 각 기관과 기능의 형성에는 지구중력과 지표 및 대기환경의 여러 요소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으며 지상의 모든 생물은 이러한 환경조건의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어 왔으며 그 결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고공이라는 특수환경에 폭로되게 되었다. 고공의 환경은 지상에서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하며 지상에서는 체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항공의학의 사명은 비행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종사 신체적성 평가와 건강관리 및 항공생리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조종사가 쾌적한 상태로 비행임무에 종사케 하고 조

종사의 유효 조종수명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 공군의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항공 의학적 건강관리는 공군의 전투력 유지 및 비행안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중요한 조종사 건강을 위해서 공군에서는 조종사를 위한 특별한 항공의무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매년 조종사 정기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여기에서 신체 이상 소견을 조기에 발견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통한 질병의 진단을 하고 동시에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또 일상 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하게 되는 신체적 증상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해서도 담당 비행군의 관을 통하여 언제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어 365일 항상 건강을 유지하면서 비행임무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모든 조종사에게 3년마다 항공생리훈련과 항공생리 정밀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999년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항공의료원



조종사들이 비행임무 수행시 외부
정보획득의 90% 정도를
조종사의 시력에 의존하므로
정상적인 시력유지는
조종의 필수조건이다.

에서 첨단장비를 이용, 예하 의무부대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추가하여 세밀한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생리 훈련을 통하여 조종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산소증, 가속도, 비행착각, 야간시각, 비상탈출 등에 대한 특수 이론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물리적, 생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훈련을 통해 극복책, 예방책을 제시하여 조종사들의 건강 유지뿐 아니라 공중기동시 발생될 수 있는 비행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365일, 비행임무 이상무

한편 조종사들이 비행임무 수행시 외부 정보획득의 90% 정도를 조종사의 시력에 의존하므로 정상적인 시력유지는 조종의 필수 조건이다. 물론 조종사 선발시 시력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조종사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이론적으로는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 기준을 적용하면 상당수의 지원자들이 탈락하게 되고 따라서 지원 인력의 운영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조종사들이 착용하는 안경은 일반인들이 쓰는 안경과는 다른 특수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종사용 특수 안경을 국내 안경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제작연구 중이며 곧 제품화되어 2004년부터 전 조종사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군

의무감실에서는 철저한 항공의무 관리로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부터 저시력 조종사에게 콘택트렌즈를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콘택트렌즈의 착용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며 고도의 가속도가 부과되는 상태에서는 콘택트렌즈가 탈락될 수도 있고 또는 콘택트렌즈와 안구 사이에 저기압 상태에서 기포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종사는 반드시 조종사용 안경을 예비비용으로 휴대하고 조종석에 올라가야 한다.

또한 비행 중 우리 인체가 받는 장애 중에서 가장 빈번한 것은 고도를 오르내림에 따라서 일어나는 기압의 변화로 인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변압증이라고 알려진 이러한 현상은 저산소증과 함께 비행에 있어서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행 중 가장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중이통 및 항공성 중이염으로, 특히 조종사들이 독감에 걸릴 경우 중이 내부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이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즉, 공군의 전투력은 전투기가 공중에서 비행을 하면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조종사가 독감에 걸림으로 인해 비행을 못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할 전투기의 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독감의 특성상 집단적으로 조종사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 영공방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군 의무감실에서는 공군의 전투력 유지 및 비행 안전을 위해서 독감 예방 접종을 올해부터 매년 가을에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감사합니다!

공군으로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든든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필승'이라는 거수경례와 큰절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그 동안의 근심과 걱정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군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벅찬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
게 몇 자 적으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진주의
교육사에 아들을 남겨두고 돌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제 눈에는 너
무나 어려워 보이는 그 녀석이 그 힘든 훈련을
잘 받아낼 수 있을지... 이런 무수한 걱정들
이 그날부터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텅빈 아들의 방에 들어
가면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배가 되어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
게 하였습니다. 2주 정도가 지

났을 때 아내가 아들이 입소

했을 때 입고간 옷들이

배달된 소포를 받고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걸 보니,

저 또한 마음

이 너무 아팠습

니다. 하지만 이

때 꾸깃꾸깃한 종

이에 '걱정마십시오.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있는 듬직한

아들의 모습을 조금이나

마 느끼게 해주는 편지

가 저희 부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면서, 동시에 너무 큰 감격과 든든함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받은 자대는 '방공포대'라는 너무나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공군으로 갔으니, 의례 비행장에서 근무하겠거니 했는데, 어느 산꼭대기에 있는 방공포대라니... 아들의 다소 걱정스러운 전화 한 통에 저 또한 그리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아들이 휴가를 보내고 다시 부대로 돌아갔지만, 더 이상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거나 근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감동과 든든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너무나 든든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필승'이라는 거수경례와 큰절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그 동안의 근심과 걱정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또한 비록 날씨가 춥고, 산꼭대기의 근무여건도 만만치는 않지만, 근무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따뜻한 잠자리와 아무런 문제없는 병영생활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너무나 밝은 모습에 정말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처럼 잘 챙겨주고 신경써주는 선임병들과 힘들지만 즐겁게 지내는 일화를 한참 늘어놓고, 자신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세심한 신경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포대장님, 주임원사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의 고마움을 자랑하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에게 한통의 반가운 mail이

도착했습니다.

'부모님, 저는 자제분을 지휘하고 있는 공군 방공포병 ○○부대장 소령 ○○○입니다. 이 추운 겨울 군에 보낸 자제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저를 믿으시고 안심하십시오. 우리 부대는 「사람관리가 곧 부대관리의 핵심」이라는 마음자세로 정이 넘치는 부대, 병사 개개인의 집같은 부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과 부대원과 포대장이 같이 찍은 사진 한 장과 같이...

요즘 들어 아직도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등, 군생활을 하는 장병들의 사고가 일어난다는 보도가 다시 나오는 걸 보면서 군에 보낸 한 자식의 아버지로서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에서, 포대장님의 정성어린 한통의 mail을 통해서 군대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대다수의 부대에서는 우리 아들의 부대처럼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에 보람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가족 속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든든하고 씩씩한 아들의 모습에서 벅찬 감동을 느꼈고, 이렇게 세심한 배려로 제 아들을 잘 돌봐주시고 계시는 공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지금 제 자신을 너무나 행복하게 합니다. ⊕

- 인터넷 공군홈페이지 '열린 게시판'에서



24시간 눈과의 전쟁 이상무

제18전투비행단 소령 이승주

“금일 21:00경부터 폭설이 예상되니, 전 제설통제본부 요원들은 정위치 대기바랍니다.” 라는 무전기 발신음이 고요한 제설작전 통제본부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전달되고 있다.

‘영공방위 선봉장’으로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18전투비행단은 강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최단 시간 내에 쌓인 눈을 치워 항시 완벽한 전투임무를 준비해야 하기에 제설통제본부 요원뿐만 아니라 전 장병들은 눈에 얽힌 낭만의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설전(雪戰)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제설통제본부는 제설작전에 즉각적으로 투입될 30명씩 3개조의 장병과 SE-88을 비롯한 장비로 무장하고 동계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완벽한 제설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작년 12월에 내린 첫눈이 55.6mm의 강설량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어느덧 누계 1,200mm 이상의 강설량을 기록했으며, 봄이 시작되는 3월까지도 폭설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설통제본부는 긴장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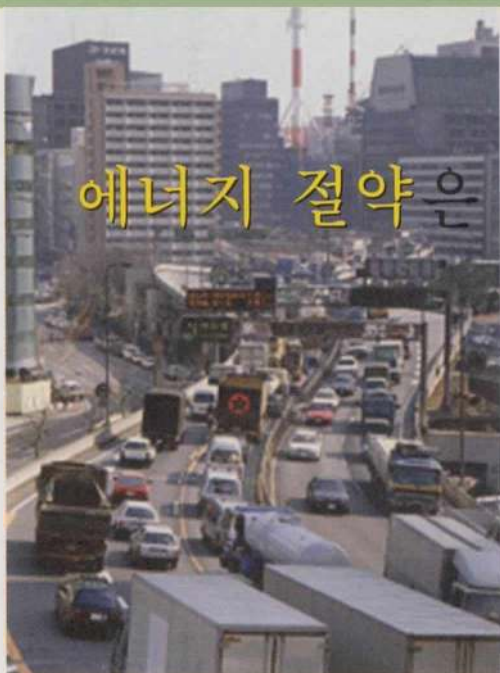
설전에 투입되는 장비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회전날을 이용하여 눈을 빨아올려 활주로 밖으로 빨아 내는 스노우 블로어

(Snow Blower)와 쌓여서 얼어 붙은 눈을 활주로 밖으로 밀어내는 그레이더(Grader), 스노우 플라우(Snow Plow), 활주로 밖에 모인 눈을 트럭에 퍼담는 로더스쿵(Loader Scoop) 등이 있다.

그러나 제설장비 중 단연 압권은 특수 제작된 다목적 제설장비인 SE-88.

SE-88은 도태 항공기의 제트엔진을 재활용하여 제작된 제설장비로 제트엔진을 가동할 때 나오는 엄청난 열풍이 활주로에 쌓인 눈을 휘몰아 20~30m 밖으로 날리며 섭씨 400도에서 500도에 이르는 높은 온도로 활주로에 쌓인 물기를 순식간에 증발시켜 활주로 전체에 200mm 이상 쌓인 눈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놀라운 제설능력을 갖고 있다.

모든 장비들은 100% 가동률을 유지함과 동시에 장병들과 함께 24시간 깨어 있어야만 한다.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24시간 펼쳐지는 제설작전 통제본부 동절기는 항상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 힘차게 이륙하는 전투기의 모습 뒤로 지난 밤의 제설작전으로 쌓인 피로가 말끔히 날아가는 뿌듯한 성취감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는 제설작전 통제본부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



에너지 절약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

공군본부 보급처 물자과

10%의 절감이 가능한 바, 동절기 난방온도를 18°C 이하로 유지하고, 퇴근 전·중식시간 등에 냉·난방 가동을 억제하며, 동내의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간부는 주 2회, 병은 주 1회로 제한한다.

세 번째로 혼련 통제이다. 대비태세 및 혼련목적 이외의 항공기 사용을 지양하고, 최단거리 경로 이용/공역 입·출항 및 인근 공역을 사용하며, 과목 운영계획을 근거로 한 연료탑재량 조정·사용 등 연료 절감형 비행운영지침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 혹은 부대가 소홀히 하는 것이 무엇이며, 부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많지 않다. 문제는 얼마나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갖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에너지 절약은 무조건 안 쓰고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꼭 쓰되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없애자는 것이다. 불합리한 에너지 절약은 전투력 유지 및 병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일본·대만·독일·영국보다 많다는 통계는 우리의 에너지 소비 행태에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없애고 사소한 것부터 행동화하자.

에너지 절약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에너지 절약 2단계 대책'을 확정하고 강제실시를 발표하여 에너지 사용에 대한 통제강화에 나섰다.

그렇다면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에너지 절약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공군은 지난 2월 10일부터 에너지 절약 시행 지침을 수립, 적극 시행하고 있다. 먼저 기존의 차량 5부제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경차보급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동차 연료 절감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장비운용을 위해 차량 통합배차, 장거리 이동시 대중교통수단 적극 이용토록 하고, 과속금지, 경제속도 유지(일반도로 60~80km, 고속도로 80~100km), 주정차시 엔진 끄기, 공회전 방지, 자전거 이용 등의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실내온도를 1~2°C 내릴 때 7~



전자파, 안녕!

제3방공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홍 승 권**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전자파 환경에 점점 둘러 싸여 있게 되었다.

특히 휴대폰은 우리 나라에서만 가입자가 2천 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청소년층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휴대폰이 최근에 나온 기기이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 제재하는 경향이고, 이에 대한 근거를 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휴대폰 사용시 가능하면 전자파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첫 번째로 각자의 안테나 위치를 살펴보자.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손으로, 왼쪽에 있으면 왼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것이 머리에서 멀리 떨어져 사용할 수 있으며, 플더형보다는 플립형이 인체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휴대폰의 기기적 특성상 송수신시 전자파 발생이 많으므로 되도록 신호가 가고 착신이 완료되면 귀에 대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특히 임신부나 청소년의 경우 목에 걸고 다니고, 이어폰을 항상 귀에 꽂고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

에 걸면 휴대폰이 심장과 허파에 위치하여 머리뼈로 침투하는 전자파 양보다 많고,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폰 사용이 머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한때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다량 전자파 수신에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어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생활에서의 전자파도 중요하지만, 1970년대 미국 덴버지역의 소아 백혈병과 임파종의 발생률이 높았던 이유는 전기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뇌종양과의 관련성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다른 급성적 질환과는 연관은 없다.

한편 다른 생활 가전기구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나 단하나 전자요를 깔고 자는 것은 수면시간 동안 밀착하여 있어 인체의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문명의 이기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지혜롭게 활용

하는 것도 건강한 삶의 영위법 중의 한 가지가 될 것이다.Ⓜ



폭행과 비폭행 사이



제18전투비행단 법무실 대위(진) 지 귀 연

을 조심해야 한다. 일부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인간적으로는 피해자가 오히려 잘못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의 세계에서는 양상이 다르다. 맞았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지 하면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 그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고려할 뿐이다. 싸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싸워서 같이 때렸다면 둘 다 폭행, 상해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싸우게 된 원인을 가려 네가 옳다 그르다 하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군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합은 어떤지 생각해보자.

기합은 자신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시키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기합을 주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물론 상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경우 폭행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강요죄'라는 것으로 처벌한다. 해야 할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킨 경우 처벌하는 것이 강요죄인데, 그 형량이 높으므로 이를 명심하여야겠다. 폭행이나 상해는 밤에 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형량이 높아진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를 때려 줄 일이 있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면 반드시 혼자서, 밝은 대낮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때려 줄 일이다.

그래야 다소나마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폭행과 상해는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다른 이를 폭행 또는 상해로 고소,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폭행의 법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이다. 다소 어려운 말이지만, 실체는 타인의 몸에 어떤 힘을 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폭행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 기분 나쁘다고 친구의 머리를 툭툭 친다든지, 부부싸움 도중 자기 부인을 밀어 넘어뜨린다든지, 심지어 자기 배로 상대방 몸을 강하게 부딪힌다든지 하는 경우 무조건 폭행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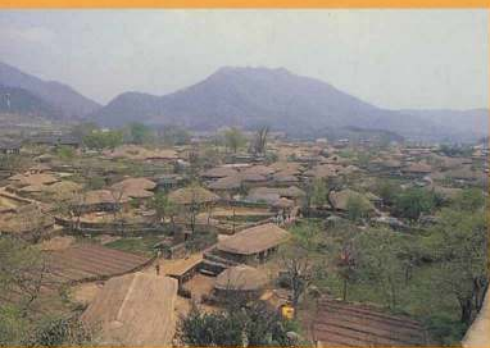
꼭 몸을 써서 힘을 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돌이나 장난감 등을 집어던져도 맞았든, 맞지 않았든 관계없이 모두 폭행이 되는 것이다. 법대로만 하면 우리 나라는 온통 폭력 전과범 투성이다. 다만, 우리 문화가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너그럽기 때문에 일일이 형사 입건되지 않을 뿐이다.

상해라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 침해라는 것이 통설인데, 쉽게 말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상해가 된다. 즉, 아주 가벼운 몸의 이상만 있어도 바로 상해가 되는 것이다.

상해나 폭행은 그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것

역사 속의 민속마을

글·사진/여행칼럼리스트 김 석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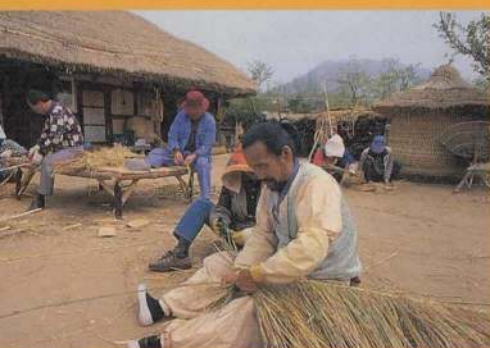
1

전남 순천 낙안면에 위치한 낙안읍성은 수원에 있는 민속촌과 더불어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민속마을로 손꼽힌다. 그러나 수원 민속촌에 비해 훨씬 역사의 뿌리가 깊고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성곽이나 비각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점이 나, 고증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속촌의 정의로 볼 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민속마을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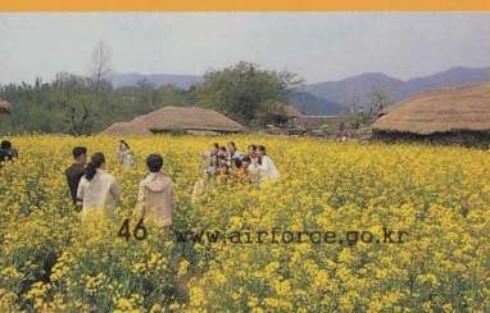
2

낙안읍성은 마한의 옛터로서 이미 부족국가 시대 이전부터 주민들이 부락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조 6년인 1397년, 왜구의 침입에 대항하여 이 고장 출신인 김빈길이가 의병을 일으키고 흙으로 성을 쌓아 올린 것이 읍성의 골격이 되었다. 그러다가 1420년대부터 조금씩 흙 대신 돌로 성곽을 축조하기 시작했는데 1626년부터 3년여에 걸쳐 당시 낙안의 군수였던 임경업 장군이 그간 미흡했던 성곽을 중수 개축하여, 돌로 된 읍성의 골격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이렇게 축조된 낙안읍성 성곽의 총 연장길이는 1,410m에 이른다. 성곽의 폭은 4~5m 넓이의 비교적 넓은 길로 잘 관리되어 있어 이 성곽을 따라 거닐며 빼곡이 들어 차 있는 초가집들을 구경하는 맛이 제법이다.



4

일반적으로 읍성은 지방의 행정관서가 있는 고을에 축성되기 때문에 행정 및 군사기능을 갖추게 마련이고 따라서 낙안읍성도 당시 낙안마을의 행정기능을 담당했던 동헌이나, 왕명을 받고 파견된 관리가 머물렀던 낙안객사 등의 건물들이 고증을 거쳐 건립되어 있다. 또한 인조 4년 임경업 장군이 낙안군수로 봉직

낙안읍성



하면서 토성을 석성으로 중수하고 선정을 베푼 은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선정비(善政碑)나 동문, 서문, 남문 등의 출입문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다.

그러나 뒀니뒀니 해도 이 마을의 백미는 초가집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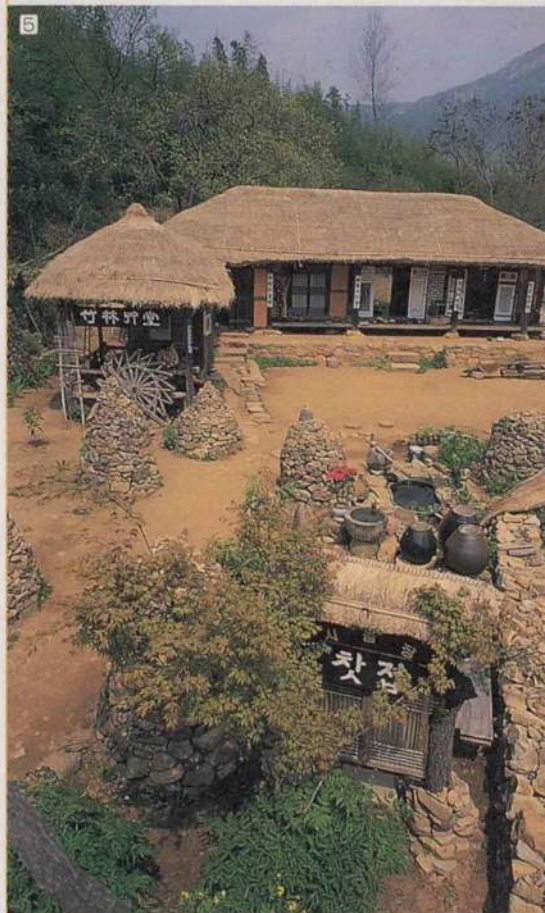
100여 채의 초가지붕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순도순 모여있는 정겨운 모습이야말로 낙안읍성을 둘러본 일반인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낙안읍성에는 19세기 초에 건축된 중요민속가옥들이 9동 있으며, 이들 전통가옥들은 한결같이 당시 서민들의 소박하고 멋스런 생활방식을 보여준다.

이 마을 사람들의 생업은 다양하다. 먼저 이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가게들(슈퍼, 민속품가게)이나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사람들부터 농업, 회사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 각양각색이다. 재미있는 점은 마을 내 음식점 경영권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원시적이긴 하지만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비뽑기로 경영권을 결정한다. 음식점의 주인은 1~2년마다 실시되는 제비뽑기에 의해 바뀐다. 말하자면 고루고루 그 혜택을 보되 뒷말이 없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다.

낙안읍성에 가면 집들 사이를 한가롭게 걸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 어린 시절의 고향 정취가 넉넉히 배어 나오는 골목을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 것들이 많이 다친다.

옛날 서당을 복원해 놓은 낙안서당부터 들려 보라. 박인수 훈장님이 회초리를 들고 둥근 안경을 쓴 채

1.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낙안읍성의 전경. 약 100여 채의 초가집과 동헌, 객사 등의 기와건물들로 구성된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촌이다.
2. 조선시대의 지방관아였던 동헌에는 당시 죄인판결의 한 형태였던 태형을 묘사한 인형이 있어 눈길을 끈다.
3. 짚풀 공예가인 임재지 씨가 동네 주민들과 새끼를 고아 이엉을 만들고 있는 모습
4. 화려하게 핀 노란 유채꽃 사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5. 단아하고 멋스러움이 넘치는 죽림정사에선 선암사서 재배한 아생자실차를 음미할 수 있다.
6. 아트막한 돌담길을 따라 마을을 둘러보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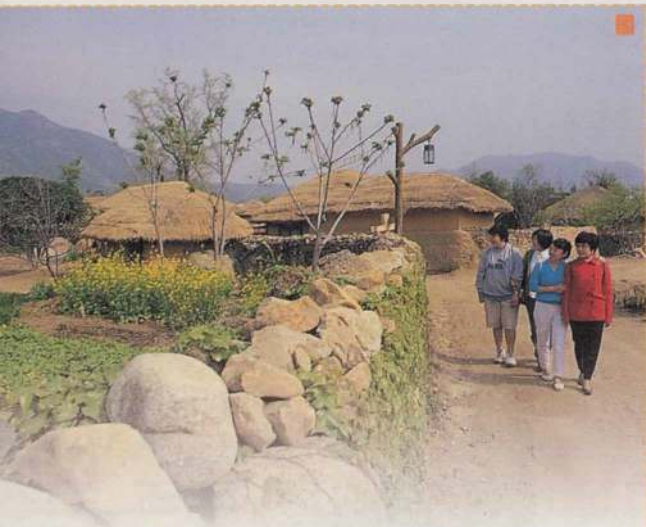
명심보감 등을 흥얼거리며 읽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다. 몇 마디 통성명을 하고 나면 방안에 들게 하시고 객을 위해 멋진 글이나 난을 쳐주시기도 한다. 훈장님이 가르치는 진돗개 백구는 뒷마루 밑에서 잠을 청하고... 서당 뒷집에는 베를 짜는 집이 있고 그 뒤에는 경력 20년의 짚풀공예가 임채지 씨가 새끼를 꼬아 이엉을 만들거나 객들을 위해 즉석에서 짚신을 만들기도 한다. 임씨는 최근 일본 나고야와 교토현 민속촌의 초청으로 4개월 반 동안 그곳 민속촌에서 한국의 전통 짚풀공예시범을 보여 NHK TV에 소개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돌아왔다.

민속마을을 다니다 목이 쭈뼛해지고 다리를 쉬고 싶을 때는 마을 내 민속 음식점에 들려 동동주에 빈대떡이나 도토리묵을 시켜 먹어 보라. 그리 비싸지도 않은데다가 맛도 괜찮은 편이라 이 마을을 찾는 정취를 한결 북돋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 밑에 소담스럽게 자리잡은 전통찻집인 죽림정사를 들려 차를 마시는 맛도 삼삼하다. 소담스럽게 쌓아올린 돌담과, 대나무 도롱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영롱한 조그만 연못, 토종야생 꽃들이 도란도란 고개들을 흐르는 이 찻집에선 인근 선암사 자락에서 재배한 야생 작설차를 맛 볼 수 있다. 선암사 차는 쌍계사 차와 더불어 남도의 대표적인 작설차로 이름이 높다. 은은하게 입안에 배는 향기와 맛은 여행의 멋을 찾는 선객들에게 깔끔한 추억의 한 갈피를 선사해 줄 것이다.

낙안읍성은 사실 연중 몇 번씩 찾아와도 질리지 않는 자연스런 푸근함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다. 남도인들의 솔직 분방한 입담이며 구수한 인심이 아직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월대보름 행사나 5월에 열리는 낙안민속문화축제, 10월에 열리는 남도음식 문화축제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심심지 않게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사라져 가는 우리민속 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이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장소로도 낙안읍성은 꼭 들려 볼 만한 이유가 넉넉한 곳이다. 📍



● 찾아가는 길

자가용 : 호남고속도로-승주 I.C-857번 지방도로
경부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함양-남해
고속도로-남원-승주-857번 지방도로

대중교통 : 순천역-낙안행 시내버스
순천역-벌교읍-낙안군내버스

연계여행지 : 조계산(선암사), 송광사,
고인돌공원, 주암저수지



3월 황사피해에 대비하자

73기상전대 중령 염영경

평균 서너 차례 발생하며 주로 3월에서 4월에 가장 많이 관측되고 있다. 황사가 발생하면 인체가 많은 영향을 받는데, 심한 경우에는 호흡기질환, 안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외출은 삼가고 외출 후에는 식염수로 눈과 코를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황사는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시정을 악화시키는 데 이는 조종사로 하여금 비행착각을 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비행불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제트 항공기의 엔진부분은 공기 흡입시 황사입자가 같이 유입되어 내부기관의 마찰증가로 인한 피스톤의 마모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밀측정장비의 정확도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올해도 황사현상이 예년평균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다.

2월이 눈과 강풍, 그리고 추위로 어려웠던 달이었다면, 3월은 희망과 기대를 주는 봄의 시작이다.

3월에는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이동성 고기압 형태로 바뀌고, 화중 지방에서 발생한 습윤한 저기압의 통과가 빈번해진다. 기온은 1도에서 11도로 점차 올라가면서 봄이 우리 곁에 온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기도 한다. 강수량은 평균 58mm로 조금씩 늘어나지만 가뭄은 계속되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므로 화재예방에 주의를 할 때이다. 또한 기온이 상승하여 긴장은 완화되고 날씨는 급격하게 변하며, 안개발생 또한 증가하게 되어 지상 및 항공작전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봄철의 불청객 황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황사는 중국 북부 지방의 황토지대로부터 생긴 작은 먼지입자들이 3천~5천 미터 상공으로 상승한 후 대기중에 퍼져 상층에 부유하거나 장거리 이동 중 지표로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연

희망의 3월이다. 봄의 따스함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아지랑이 타오르는 감미로운 공기가 문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마음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봄을 제일 처음 받아들이는 문과 창에 봄맞이 채비를 할 때이기도 하다. 우리의 선조들은 입춘대길(立春大吉),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 등을 써 붙이며 좋은 기운만 들어오길 빌면서 정성스럽게 봄을 맞이하였다.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정성스럽게 봄을 맞이한 것과 같이 장병 모두는 정성을 다하여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이기도 하다. ☼

블랙이글

팬클럽

초청행사

글 · 사진 : 항공기 사진작가 김 태 협(www.aircraftphoto.co.kr)

지난 2월 8일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바로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팬클럽 '이글윙' 초청행사가 그것. 2000년 8월 처음 시작되어 매년 2월과 8월, 학생들의 방학에 맞추어 열리고 있는 초청행사는 이번이 6번째.

곡예비행 관람, 항공기 견학, 조종사 사인회, 기념품 증정, 다과회, 조종사들과의 대화의 시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블랙이글과 팬들과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그동안 많은 팬클럽 회원들이 바랬던 블랙이글 공식 홈페이지(www.black eagles.airforce.go.kr)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 기쁨이 한층 더했다.

전 군에서 유일하게 팬클럽이 있는 블랙이글.

앞으로도 블랙이글이 비행에 대해 꿈꾸고 동경하는 이들과 공군을 친근하게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지금처럼 충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란다.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2.6.1~2004.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3 2 0 - 9 1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월간 공군

320-913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효) 6231-7, 02) 506-6231-7

월간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03. 3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문제는 67쪽에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문제는 67쪽에



1. 블랙이글의 멋진 곡예비행모습
2. 항공기 무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회원들
3. 대대를 구경하던 중 역대 블랙이글 조종사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4. 익숙한 듯한 조종사들의 사인회 모습
5.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블랙이글 대장 중령 홍승호
6. 행사에 대해 설명 중인 이글윙 회장 박길한님
7. 조종사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 시간을...
8.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찍은 단체 사진





Flight Simulator(1)

시뮬레이션 게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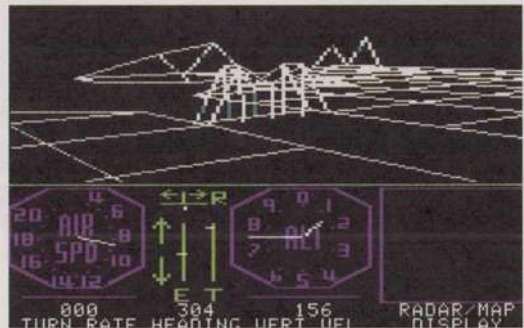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02

프로그래머 · 게임평론가 최 세 영(artie@artie.pe.kr)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 했던가. 이루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와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 역사의 숙명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소망을 라이트 형제가 키티호크에서 이루어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후 70여 년 만에 브루스 아트워는 개인용 컴퓨터 속에서의 가상 비행을 실현시켰다. 전세계에서 제작되어진 유명한 항공기를 집에서 편안히 조종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의 역사가 브루스 아트워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Flight Simulator)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브루스 아트워는 일리노이 주립대의 전기공학 대학원생이었으나, 비행에 심취하여 1975년에는 개인 조종사를 겸하게 된다. 그리고 휴즈사에서 신호처리 장치의 구조 설계 및 레이더 조종 시스템에 대해서도 깊은 경험을 쌓게 되며, 후에는 서브로직(SubLogic)이라는 그래픽 시스템 전문 회사를 세우게 된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지식이 결합될 때 뛰어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비행기 조종술과 컴퓨터 그래픽의 운명적인 만남도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서브로직에서는 결국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개발해낸다. 첫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8비트 컴퓨터인 애플용으로 1979년에 개발되었고, 이를 1세대로 분류한다. 이 시기는 개인용 컴퓨터가 혁명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시기인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이 혁명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애플용 소프트웨어의 베스트 셀러가 된다. 2세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의 시작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빌 게이츠와 연관이 있다.



최초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의 성공 가능성을 알아보고 브루스 아트워를 끌어들이며 IBM PC용으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게 한다. 198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플라이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1.0 IBM-PC버전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4.0

시뮬레이터 1.0이 개발되어 2세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시작된다. 이듬해에는 서브로직에서도 애플용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을 출시한다. 이때부터는 게임에 쓰이는 색상도 증가되었고, 지형 역시 더 세밀하게 다듬어졌으며, 항법장치도 등장하여 단순한 게임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실성 있는 비행 시뮬레이션의 전통을 세우게 된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해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버전을 내놓으며, 컴퓨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컴퓨터 성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실행해보면 될 정도였다. 플랫폼도 하나 둘씩 늘어나, 애플을 비롯해 TRS-80, 코모도어, IBM-PC, 매킨토시, 아미가, 아타리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인용 컴퓨터에 이식되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00은 2천만 개를 넘어서는 판매를 기록해 기네스 북에도 올랐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시리즈는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다. 가장 최근에는 8.0에 해당하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02가 판매되고 있다. 최신 버전과 과거의 시리즈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면, 20세기 말에 불어닥친 디지털 혁명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과거 4색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시작되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완벽한 비행모델과 더불어 다양한 항공기로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누비며 비행할 수 있다. 지형의 세밀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위성 사진 정보를 이용해 실제 공항의 활주로 위치 정보 등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유명한 건물이라면 예외없이 게임 속에서 등장하는 등 현실을 완벽할 정도로 재현해냈다. 비행시간도 현실과 같아서, 보스턴의 로건 공항에서 출발하여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착륙할 계획을 잡는다면 실제와 같이 1시간 정도를 생각해야 한다. 항공기의 종류도 많이 늘어나서, 경비행기인 세스나는 물론, 747이나 콩코드와 같은 여객기도 조종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능은 비행기를 직접 설계하여 운항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픽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비행 외적인 요소도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계절이나 밤낮의 시간, 기상의 변화마저 세심하게 표현해 낸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시리즈의 가장 탁월한 점은 무엇보다 사실적인 조작성으로, 미해군 조종사 양성에 이용된다고 할 정도이다. 다른 게임들과는 달리 항법장치, 통신장치, GPS나 ILS 같은 계기들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관제탑 교신을 통해 이륙허가를 요청하거나, 다른 비행기의 항로에 대한 정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02

전투의 요소도 없이 수시간 동안 비행만 하는 것이 전부인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이 왜 이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을까?

그것은 비록 가상 속의 비행이지만, 그 시대가 갖는 최고의 기술력을 이용해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멋진 경험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래 품어 왔던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꿈을 가상공간에서 실현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를 교환할 수도 있다. 심지어 택싱등(Taxiing Light)이나 착륙등마저 끄고 켤 수가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

2000년, 게임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중 하나인 <유럽판> '게임스팟'에서는 게임 발전에 공헌한 100개의 게임을 선정한 바 있다. 이 랭킹에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놀랍게 6위를 차지했다.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으로는 가장 높은 순위이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 1위는 시드 마이어의 문명시리즈가, 2위는 둠을 포함한 퀘이크 시리즈, 3위는 전략 시뮬레이션인 커맨드 앤 퀸커 시리즈가 차지했다. 심시티가 7위, 울티마 시리즈가 10위를 차지한 것도 흥미롭다. 다만 유럽에서의 조사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성향을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디아블로나 워크래프트 시리즈는 각각 34위, 35위를 기록했다.

롤플레이 게임인 울티마 시리즈를 제외한

다면, 역사상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시리즈만큼 성공적인 장수를 누리는 게임은 찾기가 힘들다.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만 볼 때,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게임이라면 주저없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시리즈'와 '펠콘 시리즈'를 꼽곤 한다. 그리고 작년부터 공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군참모총장배 비행시뮬레이션대회'에 채택된 두 게임이 바로 이들이다. 펠콘 시리즈의 미래는 다소 불투명해 보이지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만큼은 앞으로도 몇 년 이상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전투의 요소도 없이 수시간 동안 비행만 하는 것이 전부인 이 게임이 왜 이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을까?

비록 가상 속의 비행이지만, 그 시대가 갖는 최고의 기술력을 이용해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멋진 경험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래 품어 왔던 꿈을 실현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98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00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02

예민한 여자들을 위한 소설적 영화 <디 아워즈>

영화평론가 김지훈

올해 아카데미 9개 부문 후보에 오른 <디 아워즈>는 마이클 커닝햄(Michael Cunningham)의 소설 『세월』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1923년 영국 리치몬드 교외의 어느 하루. 버지니아 울프(니콜 키드먼)는 오늘도 집필 중인 소설 『델러웨이 부인』에 관한 구상으로 머릿속이 가득하다. 저녁식사 시간을 얼마 앞둔 버지니아는 무작정 집을 뛰쳐나가 기차역으로 간다.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탈 찰나에 그녀는 급하게 자신을 쫓아온 남편과 팔짱을 끼고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1951년 미국 LA의 어느 하루. 『델러웨이 부인』에 빠져 있는 로라(줄리안 무어)는 둘째를 임신한 채 세상살이 난 아들 리처드와 함께 남편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로라는 갑자기 자신의 일상에 염증을 느끼고 아들을 맡겨놓은 채 무작정 집을 나선다. 호텔 방에 누워 자살을 생각하던 그녀. 그러나 다시 부랴부랴 남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케이크를 만든다. 둘째를 낳은 후엔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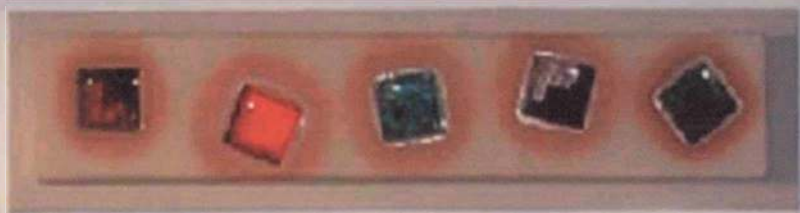
2001년 미국 뉴욕. 소설 속 주인공인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출판 편집자인 클래리사

(메릴 스트립)는 지금 옛 애인인 리처드(에드 해리스)의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엄마 로라(1951년의 바로 그 로라다.)에 대한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온 리처드는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파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클래리사는 리처드를 찾아가지만, 그는 그녀와의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클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5층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만다.

이 여자들은 세계의 거대한 교향악에 묻혀 있던 예민하고 미세한 일상의 웅성거림을 감지한 이들이다. 감정의 주파수를 조율하는 사운드트랙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조성의 미묘한 차이를 발산하는 필립 글라스(Philip Glass)의 미니멀리즘 스코어 속에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여자들의 심리적 소용돌이가 밀려왔다 또 밀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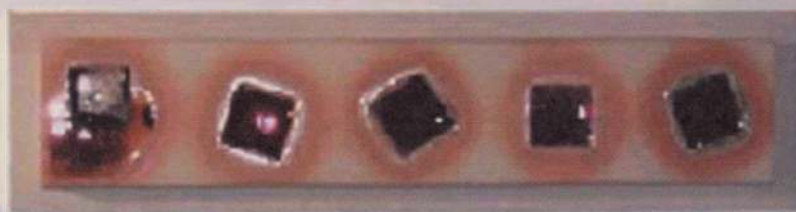
영화로 부활한 『세월』은 글라스의 스코어와 배우들의 현존, 시청각적인 고요함과 떨림, 그 모든 미세한 배치들이 내면독백의 자리를 대신한다. 그리고 <디 아워즈>는 그런 소설을 충실하게 각색한 '소설적인 영화'가 되었다.Ⓜ





사각 속에 담긴 환타지아...

- 도예작가 여화선 편 -



대전 MBC 리포터 김 선 영

물과 불과 흙..., 그리고 바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도자기이다.

인간이 물레를 돌리고 흙을 빚어 그 틀은 만들지언정 그 영혼까지 빚어내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도자기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예술품이 아닐까 한다.

「도예작가 여화선」 역시 자연을 닮은 사람이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무광택의 백토... 여화선은 백토로만 작품을 만든다. 그것은 그녀가 유독 흰색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고통을 지닌 인간의 순수성과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란다. 번들거림이 없이 담백하게 구워낸 작품은 미완적인 느낌과 동시에 흙이 느껴진다. 땅이 느껴진다. 자

연이 느껴진다.

올 1월 초, 그녀의 전시장을 찾았을 때 어린시절 구슬치기했던 때가 생각이 났다.

땅 바닥에 엎드려 손톱에 까만 흙이 끼는 줄도 모르고 만나질을 뒹굴며 따온 유리구슬 한줌, 동생과 이불 뒤집어쓰고 손전등으로 한 개씩 비춰가며, 그 영롱함과 아름답게 갈라진 색과 투명함에 빠져들었다.

그 아름다웠던 나의 유리구슬들이 전시장에 있었다. 더욱 아름답게 변신을 하고...

사각의 틀 안에 다시 틀어진 또 하나의 사각, 그 안에 만화경 속처럼 신비롭고 환상적인 색깔로 균열되어 있는 유리, 그녀의 유리는 아름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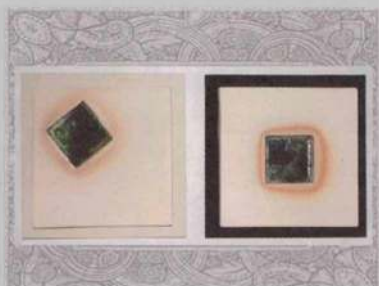
눈물이 그렇그렇 고인 채 부서져 버린 푸

른 눈동자와도 같고, 깨진 유리 위에 진초록 먹을 갈아 떨어뜨린 듯 하기도 하고, 그것은 흙으로 빛은 순백의 틀과 어우러져 또 다른 세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각들의 반복과 벽면마다 각기 자유롭게 흩어져 있는 모습은 서로 같지만 다른 느낌을 준다.

후후 불며 달콤한 핫초코를 마시는 소녀 같은 모습과 달리 여화선은 다부진 여자다. 4년 여의 미국 유학시절, 그녀만의 흙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실험을 반복했다. 만들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다시 만들고, 이를 수없이 반복한 끝에 지금의 여화선 작품의 흙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유리라는 오브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각지의 다양한 유리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아름다움의 결정체는 그녀의 작품속에서 새롭게 태어나 빛을 발한다.

여화선은 조형작가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보여준 작품은 심미성과 실용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산업미술과 조형미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요즘, 아름다운 조형성에 실용적인 부분이 접목된다면 도예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이 아닌 생활 속의 예술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을 것이다. 그녀가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컵 하나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작가의 개성과 예술성, 그리고 실용성까지 겸비한다면 그것은 분명 일반 컵과는 다를 것이다.

나는 지금 그 컵에 커피를 마시고 있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화선표' 컵으로... ☺



Profile

경희대학교 산업대학 도예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도예교육과 졸업
 Alfred University 여름학교 수료(뉴욕)
 Pratt institute of Art and Design 도예전공 졸업(M.F.A)



현)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교수



음악의 사회심리학

공군본부 중령 이상수

대중매체의 등장으로 음악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 음악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물품 구매에 음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대규모 백화점, 슈퍼마켓, 호텔, 레스토랑에 음악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성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기법이 도입되어 몇몇 백화점과 대규모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듣는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적당한 볼륨과 튀지 않는 음색으로 편곡되어 음악이 흐르고 있음을 거의 느낄 수 없지만 그 속에 음악의 유희기능을 활용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숨어있는 것이다.

슈퍼마켓, 백화점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특별한 사전 계획없이 구매행위에 나서고, 특히 여성의 경우 충동구매의 소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고객이 매장에 머무는 체류시간이 길면 길수록 매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절한 배경음악도 매상에 큰 몫을 해내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음악을 들려주는가에 따라 매상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음악의 빠르기이다.

미국의 '소비자 연구' 잡지의 조사에 따르면 느린 템포의 음악일수록 소비자들의 매장 체류시간이 늘어나며, 매출도 늘어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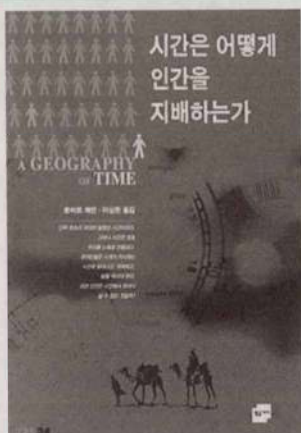
집계가 되었다. 한편 식당에서는 느린 템포의 음악을 틀어주면 식사시간이 길어지고 음료수 주문도 늘어나는 반면에 빠른 템포의 음악을 틀어주면 음식을 빨리 씹게 돼 짧은 시간 내 식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물론 식사속도가 빨라지면 좌석 회전율이 높아지는 대신 손님 1명당 매상이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패스트푸드 식당에서는 빠른 템포의 음악이, 풀 코스의 정식을 갖추고 느긋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느린 템포의 음악이 어울린다.

클래식과 팝 음악의 차이는 어떨까? 와인 매장에서 팝 음악을 틀어주었더니 팔린 와인의 양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을 때는 가격이 비싼 고급 와인이 많이 팔리더라는 보고도 나와있다.

국내 대형 백화점에서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오전에는 차분한 클래식과 경음악, 오후에는 발랄하고 경쾌한 팝송을 위주로 들려주며, 계절·시간·기후·행사별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을 두어 선곡하여 고객들에게 들려주며 세일 기간 중에는 매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빠른 템포의 음악을 틀어 주고 있다.

공군가족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4)



삶, 느린 듯이 조금 빠르게, 혹은 그 반대로

『시간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로버트 레빈 지음/황금가지

KBS 기자 이진성

지난 200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타계한 시인 서정주는 1970년대 쓴 어느 산문에서 시간과 관련한 재미난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오래 전 읽은 기억을 추스르자면 '찰나'란 눈 한번 깜빡이는 시간을, '수유'란 보기 좋게 자란 수염 한번을 쓰옥 쓰다듬는 시간에 해당한다(물론 사전적 의미는 각각 '손가락 한번 튀기는 짧은 순간'과 '잠시 동안'을 뜻한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적인 시간 인식의 척도는 숫자의 틀 속에 얽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숫자로 보여지는 시간에 맞춰 생활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간이 틀을 짠 숫자 하나하나 얽매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과 인간의 삶의 질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는 이 책의 원제는 '시간의 지리학(A Geography of Time)'. 일종의 비교 연구서인 이 책에서 사회심리학자인 저자는 여러 가지 잣대를 이용하여 각 나라 사람들의 삶은 속도(pace)를 비교한다.

중국을 여행한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그들의 삶에 녹아있는 '만만디'적 속도에 혀를 내두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인인 저자 또한 브라질에 교환교수를 갔다온 뒤 체험하게 된, 중국 사람 못지 않은 브라질 사람

들의 한없이 늘어지는 시간 관념을 서문에서 털어놓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자는 계량화된 척도를 통해 세계 31개국 국민의 삶의 속도에 순위를 매기기까지 한다. 걷는 속도, 우체국의 일처리, 시계의 정확도를 통해 본 삶의 속도는 스위스인이 가장 빠르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각 항목당 20위, 20위, 16위를 차지, 전체 18위에 꼽혔다. 아마도 '식사하는 시간', '신호등 불 바뀌고서 차가 튀어 나가는 시간' 등으로 순위를 매겼으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책은 나라별로 삶의 속도가 다른 까닭을 그 나라만이 지닌 독특한 문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가라는 질의 문제를 천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의 우화작가 미하엘 엔데는 소설 『모모』(비룡소)에서 돈을 받고 여가 시간을 시간 사냥꾼에게 팔아버림으로써 시간의 노예가 된 어른들의 고통스런 모습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몇 해 전 국내 독서계를 강타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동문선), 『느림의 지혜』(해냄), 『느리게 사는 즐거움』(물푸레) 등의 책들이 하나같이 '느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의 결과물이었음을 상기할 때 확실히 우리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너무 늘어질 필요는 없겠지만. ⊕

술선수범하는 생활

군수사령부 중령 이 면 우

논어(論語)의 학이편(學而篇) 첫 머리에 보면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라는 글이 나오는데 각각의 글자마다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학(學)이란 본받는다는 의미로써 사람의 본성은 모두 선(善)하나 이것을 앞에는 먼저하고 뒤에 함이 있으니, 뒤에 깨닫는 자는 반드시 선각자(先覺者)의 하는 바를 본받아야 선(善)을 밝게 알아서 그 본초(本初)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습(習)이라는 글자는 새가 날기 위해 반복하는 날갯짓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학문을 하는 자세는 마치 새 새끼가 날갯짓을 그치지 않는 것과 같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열(說)은 기뻐하는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 배우고 또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배운 것이 익숙해져서 가슴 속에 젖어들게 되고, 생각하는 바와 몸으로 행동하는 바가 같아지게 되어 더할 수 없는 희열(喜悅)을 느끼게 되니 그 습(習)을 자연히 그만 둘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장차 그것을 행(行)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그 배운 것을 반복해서 내 몸에 익숙하게 하면 무의식(無意識) 중에서도 자연히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니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공자(孔子)께서는 그 배움의 대상을 효제 충신(孝悌忠信)으로 나누어 각각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실천덕목(實踐德目)으로써의 가치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효(孝)라고 하고, 형과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을 제(悌)라고 하며, 자기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忠)이라고 하고, 성실히 하는 것을 신(信)이라고 이른다. 효(孝)와 제(悌)는 사람으로서 인(仁)을 행(行)하는 근본이며, 충(忠)과 신(信)은 전습(傳習)해야 하는 근본인 것이다.

공자(孔子)께서는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도리를 묻는 제자에게 대답하시기를 “술선할 것이며 또한 부지런히 해야 한다(子曰 先之勞之하라)”고 하시면서 “못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을 자신이 먼저 술선하면 윗사람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못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부지런히 애써 하면 따라하는 사람이 비록 수고스럽더라도 윗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실천 윤리으로써의 가르침을 설(說)하셨던 것이다.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인륜(人倫)의 도리(道理)를 배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도리는 말이나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술선 수범해야 하는 것이라는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것이다.Ⓢ



공군대위 임택순(任宅淳)

“삶과 죽음에 명이 있으니 죽히 논하지 말라. 사나이
조용히 하늘로 간다.”

임택순 공군대위는 1930년 충남 연기군에서 태어나 경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1년 7월 공군사관학교 1기생으로 졸업, 소위로 임관하였다.

그후 임 대위는 정찰 비행대대와 교육비행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3년 1월, 제10전투비행단으로 전속되어 F-51 무스탕 전폭기로 첫 출격을 시작하여 12회 출격하기까지 적의 탱크진지 공격과 보급로 차단, 격전 중인 지상군 근접 항공지원작전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특히 임 대위는 뛰어난 조종술과 사격술로 항상 편대의 선봉에서 작전을 주도적으로 성공시켰다.

뛰어난 조종술과 사격술로 눈부신 활약

그러나 1953년 3월, 북한군의 자동화기 진지가 결집되어 있어 동부전선 보급품 집결지로서 매우 중요한 요새였던 고성지구로 출격, 전투 중이던 아군 제5사단과의 협동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 지상군에 피탄되자 임 대위는 애기(愛機)와 함께 적의 대공포 진지로 돌입, 적진을 유린하고 장렬히 최후를 마쳤으니 공군사관학교 창설 이후 첫 전사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대위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1986년에 임택순 대위의 숭고한 군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1기부터 33기까지 공사 졸업생들이 성금을 모아 공군사관학교 교정에 ‘임택순 동상’을 건립하였으며 현재 이 동상은 공군 군사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가 출격하기 전 쓴 마지막 일기의 “삶과 죽음에 명이 있으니 죽히 논하지 말라. 사나이 조용히 하늘로 간다.”라는 글 속에서 군인으로서 오직 임무만을 생각한 군인상이 엿보인다. Ⓣ

100번쯤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

방송작가 김 은 희

그녀는 얼마 전에 벼을 하나 잃었다. 밖으로 뺄어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글을 써 보내고, 삶에 지치는 날 저녁엔 가볍게 술 한 잔 청할 수 있었던 사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글벗, 말벗이 돼주던 사람이었다. 특별한 이유도 계기도 없었다. 그녀는 어느 날 "다시는 안 만나겠어요."라고 선언했고, 그 사람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녀는 스스로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녀의 오랜 벼이 그녀의 결별선언에 침묵을 지켰던 이유도 알 수 없었다. 물어볼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뒤, 그 이유에 대해 그녀는 오늘까지 백 번도 넘게 생각하고 있다.

며칠 전, 그녀는 언젠가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인생에서 '코드가 맞는' 사람 하나 만날 수 있다면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왔던 그녀. 훗날 80살 생일의 그녀에게 그런 존재가 있었는지 묻는다면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벼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은 거짓말처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지금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녀는 잘 모르겠다. 그녀는 결별에 영향을 미쳤을 계기를 찾기 위해 더 과거의 일들을 오래도록 더듬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긴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때의 시간들이

자꾸만 불쑥불쑥 끼여 들어 오늘을 흔들어 놓곤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륜 쌓인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회한'이라는 것일까? 혹은 수많은 작가들이 표현하는 '그리움'일까? 그러나 어찌면 그녀에겐 단지 뼈아픈 '후회'일지도 모른다.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당시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상대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오래도록 궁금해 할 일을 결국 모르는 채 끝내고 말았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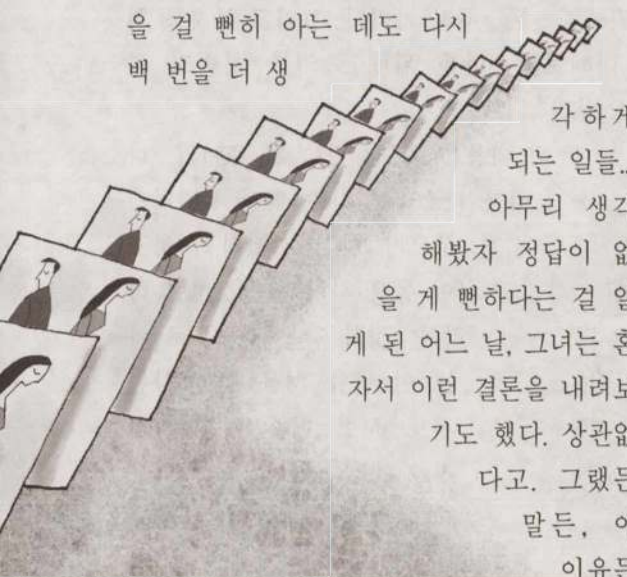
전설적인 드라마 '모래시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그 안에서 백 번쯤 생각했어. 왜였을까..."
 삼청교육대에서 나온 태수가 바닷가에서 만난 혜린에게 건네는 대사다. 태수는 왜 혜린이 자신과 결혼하려고 맘먹었을까를 알기 위해 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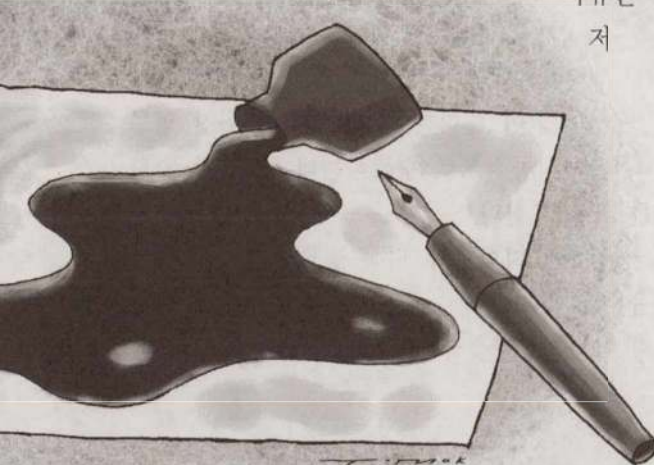


수없이 생각하고 곱씹고 되뇌어왔던 모양이다. 그때 태수의 대사 속에 담긴 '백 번'이라는 단어. 어느 숫자와 단어인들 당시 태수의 갈피없이 흔들리고 일렁이던 마음을 그토록 가슴아프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인가.

살다보면 정말이지 백 번도 넘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된 걸까. 태수의 정답이야 당연히 드라마 속에 나와 있을 터였지만, 나와 우리의 정답은 어찌면 현실 속에선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정답을 알 수 없어 괴로운 질문들. 정답을 알 수 없을 걸 뻔히 아는 데도 다시 백 번을 더 생



각하게 되는 일들... 아무리 생각해봤자 정답이 없을 게 뻔하다는 걸 알게 된 어느 날, 그녀는 혼자서 이런 결론을 내려보기도 했다. 상관없다고. 그랬든 말든, 이 이유든 저



이유에서든 상관없다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고 백은 말이고 벌어진 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나에게도 상관없는 기억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봤자 편해질 리 없다는 사실을 그녀도 모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버린 과거의 일이 오늘에 또 반복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녀는, 두 사람의 벼슬 잃은 지금, 조용히 마음속에 교훈 하나를 새기기로 했다. 바로 '합의'라는 것이다. 헤어질 땐 서로 합의할 것. 마음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 것. 해야 할 말도 들어야 할 말도 궁금한 것도. 그렇지 않으면 먼 옛날의 그리움이나 추억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문득문득 떠오르는 궁금증일 수도 있을 테니. 그런 걸 안고 오랜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우리의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녀의 두 벼슬 역시 그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백 번을 지나 또 한 번 생각의 횡수를 더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벼슬이든 사랑이든 가족이든, 관계의 시작이 언제 어떻게 비롯됐는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시작과 달리, 그 관계의 '끝'은 오래도록 지속될 '무언가'를 남긴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강도와 지속시간은 더해진다. 쓰디쓴 회한과 후회일 것인가. 소중한 추억과 그리움일 것인가. 그 '무언가'를 어떤 모양새로 만들 것인가는 결국 '지금'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닐지. 훗날, 백 번쯤 생각해봐도 정답을 찾지 못해 찢찢매지 않기 위해선 말이다. Ⓡ

덕장(德將)이 필요한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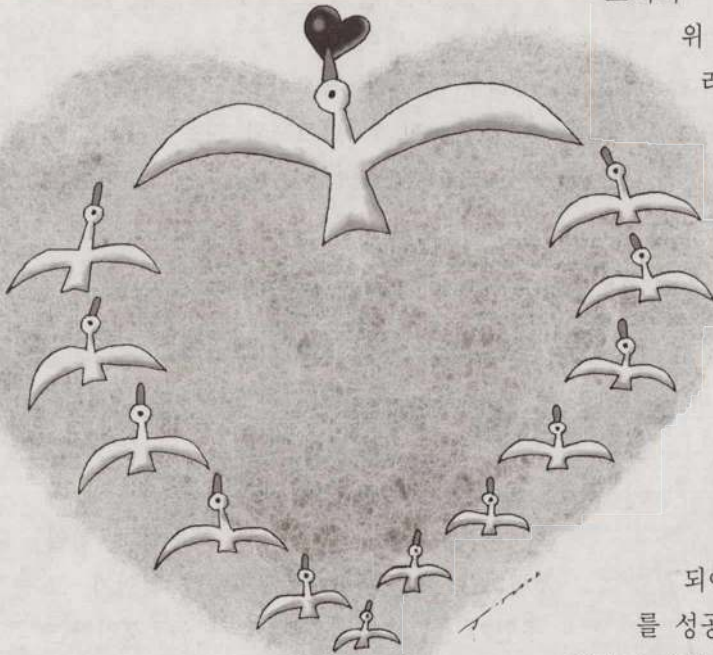
총·효·예 실천 운동본부 상임위원 겸 교수 김 국 창

사랑은 군림하지도 성내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태도이고 또한 존중하며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정신은 물리적 힘으로 정복되지 않으며 사랑으로만 정복이 가능하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고(思考)나 체질(體質)에 맞는 명언(名言)·명구(名句)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부하를 자식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깊은 골짜기까지 너를 따라 가리라. 그리고 부하를 형제처럼 대해보라. 너를 위해 죽기를 서슴지 않으리라”

위 내용은 육도삼략(六韜三略)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 사랑하기를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 하고 형이 동생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나는 이 글을 처음 접한 사관생도 시절 이후 내 인생의 지표로 삼아왔다. 특히 벽오지(僻奧地) 레이더 부대의 중대장, 대대장, 전대장 등 지휘관 생활을 하면서 부하들과 원만한 분위기 속에 혼연일체가 되어 별다른 사고 없이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한다.



손자병법(兵法)에는 지휘관의 덕목(德目) 중 '인(仁)'을 으뜸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부하를 어진 마음으로 다스려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으로 군대든, 사회든 윗사람이 갖추어야 할

소양(素養)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군 전사(戰史)에서는 전차군단의 사령관이었던 패튼 장군을 최고의 명장으로 꼽는다. 탱크전의 명수였던 독일의 명장 롬멜 장군도 '패튼 부대'와의 전투에서만은 패배를 면치 못했다. 그래서 롬멜은 패튼을 시기하여 '교활한 악마'라고 폄훼(貶毀)했다지만 패튼은 부하들에게 '고결한 천사'로 여겨졌으며 부대원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패튼 장군은 전승의 공(功)을 늘 부하들에게 돌리며 '나는 부하들을 형제처럼 대했고 우리는 계급을 떠나 사랑과 신의로 굳게 뭉쳐 있었다. 이것이 전투에서 패하지 않는 이유의 전부'라고 말하곤 했다.

우리는 장군을 분류할 때 흔히 <지장(智將)>, <덕장(德將)> 및 <용장(庸將)>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현대전에 있어 무기의 특성상 돌격전이나 백병전이 흔치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용장의 시대는 거의 갔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지장의 시대요, 덕장의 시대다. 지장은 '냉철한 머리'를 뽐내며 외곬이 되기 쉽지만 덕장은 '따스한 가슴'으로 포용함으로써 늘 부하들과 함께 하는 강점이 있다.

이제는 덕장의 시대다.

소수의 엘리트가 판세(判勢)를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 오늘의 시대는 더불어 사는 시대요, 함께 하는 세상이다. 이제는 덕장의 시대란 말이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덕은 필수적이며, 그리고 덕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 동안 우리의 현실은 민주주의가 채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목적달성을 위하여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

는 인격을 경시한 채 하나의 도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군대는 사하든 상하간에 강압과 굴종, 불신과 반목, 갈등과 불협화음을 생생케 한 예가 작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열린 시대가 왔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설득이며 설득의 요결(要訣)이 덕(德)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Fichte)는 '인간 정신의 주성분은 사랑'이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사랑은 군림하지도 성내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태도이고 또한 존중하며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사랑 없이는 인간을 이끌 수도 관리할 수도 없으며 애정의 결핍은 반항심을 낳고 결국은 적대 관계를 가져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항공기가 뜨는 것은 항공기 자체의 부력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있어 뜨듯, 지휘관은 계급과 작위가 있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부하가 있어 존재하는 것이다. 부하 없는 지휘관은 무의미한 것이며 부하들의 협조와 노력이 없이 그 자리가 유지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때문에 지휘관은 감사한 마음으로 부하를 대하고 사랑으로 이끌 때 부하는 지휘관을 존경하며 따르게 되고 부대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신은 물리적 힘으로 정복되지 않으며 사랑으로만 정복이 가능하다"는 스피노자의 말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임에 틀림없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이끌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으로 따를 때 상승(常勝)의 부대, 의리로 하나된 보람있는 일터가 될 것이다. Ⓢ

공군예비역 장교 진급 선발 안내

공군은 예비역 장교들의 사기증진 및 애군심 고취를 목적으로 「'03년 공군 예비역장교 진급선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진급대상 : 중위→대위, 대위→소령

◆ 지원서 교부/접수

○ 접수기간 : '03. 2. 24. ~3. 29. 12:00(토요일 오후, 공휴일 제외)

○ 교부/접수 : 각 지역 공군부대 민원실

※ 우편접수(등기속달) : 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3호

◆ 진급자에게는 ▲ 진급선발 당해연도 동원훈련 면제(기훈련 수료자는 익년도 훈련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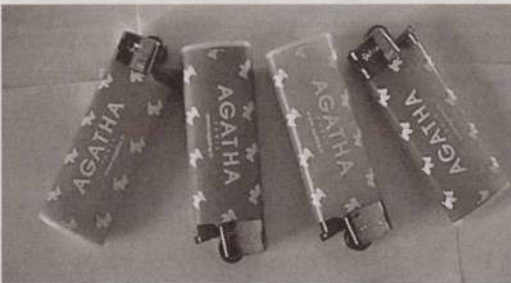
▲ 현역시 동일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교와 동등한 대우

▲ 국방부장관 임명장, 계급장 및 기념품 수여 등의 혜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 인사참모부(02-506-1191~5) 및 각 지역 공군부대 인사처, 지역/직장 예비군중대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내 반입제한 물품 확정

분사식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등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되고 1회용 라이터나 성냥은 2개까지만 휴대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내 반입제한 물품' 지침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같이 포함된 손톱깎이와 10cm 이상의 뾰족한 물건, 가위, 우산, 수예바늘, 장난감 총기 및 도검류 등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 기내 화물칸에 실어 운송해야 한다.



분실 걱정 없는 e항공권

국내 항공사에도 종이없는 항공권이 등장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항공여행시 종이 항공권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전자항공권인 'e-티켓' 시스템을 국내선은 올 상반기, 국제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이미 e-티켓을 발행해 예약 탑승수속 등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국내 항공사는 그동안 인터넷으로 예약과 구매만 가능했다. 전자항공권을 이용하면 항공권 분실 우려가 없고 여정 변경 시에도 영업장에 찾아가 항공권을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이번오 문제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독자엽서에 3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열 분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발렌타인데이

이	형	택				오	목	렌②	즈
사		시	치	미		뚜			븐
짐			매			기	윈		
센							주	윤	발①
타③	조	알		테⑤			울		
		리		이					
아	르	바	이	트			절	구	통
우		이⑥			인④	세			장
토				용	두	사	미		
반	지	의	제	왕			인	절	미

▶ 문화상품권

-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흥원기
- 충남 서천군 마서면 김영명
- 경남 산청군 시천면 문지영
- 경남 진주시 망경남동 김수정
-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남리 김정희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조규택
- 충북 청원군 남일면 임영륜
- 전북 익산시 남산면 서원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김민창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박성훈

공군지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낀 공군지 독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독자마당, 장병문예, 장병기고, 생각하는 글 등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역 장병 및 군무원께서는 소속부대 정훈실(정훈담당)을 통해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 312-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지> 담당자

* 이번달 제297호부터는 「퀴즈로! 퍼즐로!」 대신 새롭게 신설된 코너 「다른 그림 찾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산항공기 초음속 비행시대 개막!

선진 항공우주군으로

공군이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